

## 강정구 교수 구속 파문 확산

### 학내 다양한 의견 공방 직위 해제 여부 관심 집중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남북 대표단으로 참석한 강교수는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지난 24일 서울 지방법원 구속 실질심사에서 조국 통일법민족연합(법민련) 간부 등 6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또한 강교수는 방북 전 주체상상토론회에 참석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내 여론=이번 사건에 대해 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교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사회학과 학학회(회장=임선영·사회3)는 성명을 통해 "일부 보수 언론은 강정구 교수를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풍조하는 친북인사로 규정해 정치적인 의도의 여론몰이와 매카시즘적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대학원 박사과정) 역시 성명에서 '만경대 방명록' 파문에 대해 "강교수의 평소 학문적 분석에 의해 표현된 것이었고, 분명히 해명까지 했는데 구속 수사하는 정부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의 연행이 알려지면서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에도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강교수에 대해 "우리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가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네티즌은 "교수님의 경솔한 행동이 보수·반공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강교수를 친북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인식공격이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비판글도 있었다. ▲구속과 사법처리=강교수가 구속수감되면서 학내 관심은 교수직 유지에 모아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기소된 교수는 직위해제 하도록 돼있다. 일반적으로 구속실질심사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기소하기 때문에 강교수도 조만간 기소될 것이 유력하다. 직위해제 여부를 떠나 강교수를 국가보안

법 7조 1항(찬양·고무)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법과대 한상범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한정한 행위로 보수·반공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강교수를 친북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인식공격이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비판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교 북한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보수여론의 책임추궁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강교수를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의한 처벌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도영 기자 cirous@dongguk.edu



8월의 졸업... 2000학년도 서울캠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사 367명, 석사 435명, 박사 6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경주캠 학위수여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소강당에서 열린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 BSM·공학교육인증제 인정 ... 4억원 지원

본교가 2001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분야를 신청한 본교는 공과대와 정보산업대의 교양과정인 기초 과학 및 수학(BSM)과 공학교육인증제(ABEEK)를 인정받아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교육부 평가는 학교 규

모에 따른 재정지원의 편중을 막기 위해 학생수 5천명 이상인 대학과 그 미만인 대학으로 나눠 실시됐다. 본교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분야에 선정된 대학은 가톨릭대 숙명여대 등 12개 학교이며, 교육개혁실천분야에는 고려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선정돼 총 29개 대학이 145억원

## 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14좌 완등

### 내년 2월 3극점 7대륙 최고봉 정복나서

박영석(체교 93졸) 동문이 지난달 22일 13시간의 사투 끝에 K2봉(8,611m) 정상에 올라 세계에서 9번째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K2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등정성공률이 50%이하로 14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박동문은 93년 에베레스트(8,848m) 무산소 등정을 시작으로 8년여 동안 동료대원 8명을 잃는 등 수많은 고초 끝에 비로소 히말라야 8000m이상 고봉 14좌에 모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지난 4일 귀국한 박동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14좌 완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 2월 북극횡단을 시작으로 3극점 정복과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본교는 박영석동문의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기념해 오는 30일 6시30분에 엠배서더 호텔에서 '박영석동문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념식 및 귀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양캠프 교직원보직인사 발령 여학생실장 이해은 교수 등

본교는 양캠프 교직원보직인사를 발령했다. 서울캠은 지난 7일 여학생실장=이혜은(지리교육) △대학원 교학부장=이명천(화학공학) △행정대학원 교학부장=고유환(북한학) △산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장=전서현(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가 임명됐다. 경주캠은 지난달 1일 △자연과학대학장=이동원(생화학) △정보관리실장=이태경(컴퓨터학) △도서관장=김복순(국사학) △사회문화교육원장=김용택(사회복지학)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임재걸(컴퓨터학)이, 지난달 16일 학생처장에 이갑득(화학)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지난 7일자로 △총관부장=문첩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김병수 △교양병원 사무국장=김중진이 임명됐다.

## 오슬로대 학술교류협정

본교가 지난달 18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본교와 오슬로대학은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주최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동국사이버대학 설립 유보

### 타대학 운영상태 고려해 당분간 연기

#### 컨텐츠 개발 등 지속적 준비 요청돼

일선 반 동안 준비해 온 동국사이버대학설립 추진이 최종 설치승인을 앞두고 중지됐다. 이사회의 설립 유보 결정으로 10월 말로 예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사실상 내년 개교가 무산됐다. 또한 △불교 △예술창작 △경찰행정 △사이버 실무 △교양 5개 학부에 9개 전공 교수와 콘텐츠 개발요원 임용이 모두 취소됐다. 본교는 지난 98년 교육부로부터 가상대학 실험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지난해부터 독립 가상대학인 '동국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준비해왔다. 또한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승인 받고 실질적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사회는 일산병원, 신축 중앙도서관, 경주캠 기숙사 등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 때문에 사이버대학 재원조달이 힘들

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세종 사이버대학·경희 사이버대학 등이 학생 정원 문제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상태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대부분 학점당 6만원이고, 학기 당 100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과목당 제작비만 2천만원이고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교와 같이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중인 한양사이버대학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을 감수하고 사이버대학 운영을 안정화시킨다면 앞으로 사이버강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콘텐츠 개발에 노력한다면 사이버대학에서 타대학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2002년 설립을 추진해온 사업을 갑자기 유보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재정검토가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주요한 재단투자 사업은 추진 이점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이버대학은 더욱 활성화되어 대학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이버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후 동국사이버대학이 설립 승인을 받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버대학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종사이버대학 게임경영학과의 경우처럼 다른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 당신을 사이버 건축가로 모십니다!

동대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dgupress.dongguk.ac.kr)를 통해 독자를 더욱 가까이 만나고, 독자들의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듣고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전면교체, 속보란 개설, 기사에 대한 리플(Reply) 가능 환경설정, 게시판 환경 업그레이드 등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변화,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대신문 홈페이지가 개선해야 할 점이나, 홈페이지에 바라는 점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기발한 아이디어나 개성있는 의견을 올려주시는 독자 몇 분을 추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동대신문사**

## 발전기금 ARS 7000-119

### 본사사령

◇임 차장

- ▲대학부 1차장=김현정(사과대 신병2)
- ▲대학부 2차장=형진우(인문대 국문2)
- ▲대학부 3차장=김도영(사과대 사회2)
- ▲사회부 차장=우정현(사과대 정의2)
- ▲문화부 1차장=이성희(문과대 문창2)
- ▲문화부 2차장 겸 사진부 2차장=김남정(인문대 중문2)
- ▲학술부 차장=이수경(문과대 국문2)
- ▲기획부 1차장=김혜진(문과대 영문2)
- ▲기획부 2차장 겸 여론·생활부 1차장=손승민(사과대 사회2)
- ▲여론·생활부 2차장=정문미(인문대 국문2)
- ▲사진부 1차장=엄태규(사과대 사회2)

-이상 8월 27일자

# 일부 단과대 모집단위 분할

## 2002학년도부터 시행 ... 기초학문 보호·전공선택편중 방지 기대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부 단과대학의 모집단위와 인원이 변경된다. 또한 일부 전공은 폐지·신설되거나 명칭이 바뀐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지난 16일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모집단위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모집단위는 기존의 △문과대학에서 문과대학과 인문학부로 △경영대학에서 경영대학과 경영정보학부로 △정보산업대학에서 각각 정보산업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로 분할됐다. 이와 함께 사회과학대와 문과대가 각각 10명씩 줄고 대신 정보산업대학과 연극영상학부의 인원이 10명씩 늘었다. 각 모집단위에 속한 전공과 배정인원은 <표>와 같다.

이번 개정으로 모집단위 광역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전공선택편중 현상을 3개의 단과대학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호 교무처장은 “역사, 철학 등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전공간의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산대의 경우는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와 산업시스템 공학부가 학문간 공통성이 부족해 분할한 것이다.

또한 문과대 영어영문학과(야간)이 영어 통번역학과로 바뀌었으며, 경영대학 정보관리학(야간) 전공이 폐지되고 경영정보학부의 e-비즈니스 학과가 신설됐다.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는 생명·화학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에서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교과과정 제약을 준비하고, 신규교수도 점차 보충할 예정이다.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영어·통·번역학의 경우 야간대학 특성상 어문학

<표>

변경전	변경후	
문과대학 300(50)	문과대학 190(40)	영어영문학, 영어통·번역(야), 국어국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인문학부 120	사학, 철학, 윤리문화학, 독일학
경영대학 505(220)	경영대학 425(180)	국제통상학, 경영학, 광고학, 회계학, 세무회계학
	경영정보학부 80	정보관리학, e-비즈니스
정보산업대학 310(40)	정보산업대학 230(40)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산업시스템공학부 90	산업공학, 정보시스템

보다 취업중심 학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야간학과들은 취업자 중심의 학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IT 산업인력 지원 정책에 따라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인원은 10명을 늘리고 경영정보학부의 e-비즈니스 학과를 신설했다”며 “이 분야에 정부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논의 없이 결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야간학과들이 준비없이 주간으로 변경되면서 학과 실험실습실이 준비되지 않거나 변경이 적용되는 학년에 복학한 학생이 취업을 했어도 주간수업을 들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학과명칭 변경이나 전공신설시 충분한 준비작업과 학생들의 여론수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 기자 dizzo20@dongguk.edu

## 중도, 자료실 이용시간 연장

### 내달 1일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 도서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용시간은 <표>와 같다.

이번 변경은 야간강좌 학생들이

층	이용시간	
	월~금요일	토요일
1층	09:00~19:00	09:30~13:00
2층	09:00~21:00	09:30~17:00
3층	09:00~21:00	09:30~17:00

## 학림관·학생회관 보수공사 내달 착수

### 학복위 죽마고우 영화제 제3세미나실로 옮겨

학림관 소강당과 학생회관 보수공사 등이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집중호우로 물이 새는 학림관 소강당을 다음달 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강당에서 개최됐던 죽마고우 영화제와 앞으로 계획된 행사들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이나 중강당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또한 시설관리팀은 다음달 초 학생회관 4층의 부식된 계단 난간을 교체하고 옥상 가랑자리에 새로 난

간을 설치한다. 이번 공사로 휴게공간인 옥상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문 우수관 공사 일정이 내달 10일 경으로 예정돼 개강후에도 후문 통행에 다소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방학동안 실시됐던 공사는 다음과 같다. △중앙도서관=소음을 줄이기 위해 2중 방음창 설치 △동국관 옥상=휴식공간 마련 △보수공사=원흥관 천장, 동국관 5층 여학생 휴게실, 교수회관 화장실

## 수강정정

2001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기간 : 2001. 8. 29(수) ~ 31(금), 3일간  
※야간 전공 및 교양과목은 8월 29일 오후 6시이후에 수강신청 정정 시작
- 장소 : 교내컴퓨터실(시간표 책자의 실습실 안내 참조)
- 대상 : 전교생
-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 교부 : 각대학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
- 유의사항
  - 개인별로 배우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후 교학과에 제출할 것
  - 수강신청을 정정하지 않는 학생도 반드시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조회 또는 본인 수강신청 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람.
  -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교수 및 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상기 마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컴퓨터실습실에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 교무처

### K교수 복직 학내 반발

## “교심위 결과 설득력 없다”

### 성폭력 인권위 소송진행 ... 복직논란 장기화 조짐

일본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던 사회학과 K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차현직, 이하 교심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면서 학내외에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심위는 K교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지난 6월 19일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1개월 정지으로 변경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해임됐던 K교수는 3여개월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

K교수의 복직이 결정되자 사회학과 학생들과 총여학생회(회장=전이지숙·회계4)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동국대 인권위원회’(이하 성폭력 인권위)를 구성해 K교수는 자진 사퇴할 것과 교심위에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법인사무처(처장=김선근·인도철학)는 “교심위의 판결은 교원특별법 10조 2항에 따라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 재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측에 통보된 교심위의 재심결정서를 보면 △1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여성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한 경력 △동료교수 201명의 탄원서 제출 등의 이유를 들어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정지 1개월로 낮추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 인권위는 “성실한 근무는 교수의 본분이며, 여성단체로부터 받은 공로패는 K교수 개인에게 수여한 것이 아니라 사회회화에 주어진 것”이라며 교심위가 제시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캠퍼스 전체 교수의 절반이 넘는 201명이 참여한 동료교수들의 탄원서에 대해 본교의 한 교수는 “일부 교수들은 탄원서의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며 “동료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온정주의’적인 태도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은 “해임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교수들이 자발적인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K교수는 지난 20일 2개월 병가를 신청해, 이번 학기 말았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당분간 학내에서 학생들과 K교수의 직접적인 만남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M양과 성폭력 인권위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시민·여성단체와 연대해 학내 성폭력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교심위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개강과 함께 K교수의 복직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불교환경특강 개최

불교대학원(원장=김윤길·불교학)이 2학기 동안 매주 월요일 6시 30분 불교환경특강을 개최한다.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으며, ‘불교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3일에 첫 강좌가 열린다.

### 졸업생 출자금 환불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후기졸업생 출자금환불을 졸업생 당일인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후기졸업생은 언제든지 생협 사무국으로 찾아가면 배당금액인 천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졸업생출자금환불은 재학생 370여명, 대학원생 220여명

에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기존 학과실에서 환불하면서 생기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생협 사무국에서 직접 환불 조치하게 되었으니 졸업생들은 번거롭더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교직원식당, 자율 배식 변경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 13일부터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에 자율 배식 방식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율 배식 방식은 실시이후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배식 하면서 생겼던 혼잡성을 줄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또한 이전 가격의 약 10%가 삭감돼 3500원은 3200원으로 3300원은 3000원으로 조정됐다.

## 회전무대

### 반집 습격사건

○...통일 선봉대가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서 코믹 영화를 찍었다는 데.

알아보니, 미분양 아파트에 선전물을 배포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수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짜여진 일정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에만 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 통일 선봉대가 사전조사 부족으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있어야 할건 다 있구요, 시민만 없답니다 선전활동”

### 작은 화재(?)

○...집회가 진행되는 대열 곳곳에서 난데없이 화재(?)가 발생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랐다는데.

알아보니 집회 도중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이는 서로 챙겨주며 함께 해야 할 집회에서 오히려 피곤에 지친 학생들을 더 피곤하게 한 처사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집회에서 배려, 담배연기와 함께 사라지다”

### 무일푼 피서법

○...요즘 중앙도서관은 특이한 목적으로 찾아온 학생들 때문에 북새통을 이룬다는데.

알아보니 에어콘 바람을 쐬려는 학생들 때문에 정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은 발걸음을 돌리기 일수라고.

게다가 소란스러운 학생들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피서지의 풍경까지 자아낸다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도서관과 피서지의 아주 특별한 만남?”

### 배식의 철학

○...나는 네가 학생식당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학생 식당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학생들이 먹을 양 만큼만 배식 받지 않고 떠주는대로 받아 음식을 남기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남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무관심한 행동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너를 알고 배식 받으면 백 번 받아도 백 번 절약!”

## 2학기 특별시험

###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RGCC011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2	1	09:00~09:50
RGCC010	교필	실용영어2	1	10:00~10:50
RGCC008	교필	영어회화2	1	11:00~

### 2. 응시자격 : 2001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

### 3. 전 형 료 : 과목당 30,000원

### 4. 최대신청학점 : 3과목 (3학점) 까지

### 5. 원서접수기간 : 2001. 8. 27(월) ~ 8. 29(수)

### 6. 시험일시 : 2001. 9. 1(토), 09:00 ~

※ 응시과목별 시험시간에 입실완료하기 바람.

### 7.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 (본관 3층, ☎ 2260-3041)

### 8. 전형방법

가. 컴퓨터 활용과실습2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 (MS Word,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등의 실습프로그램)

나. 실용영어2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시험시후 평가

다. 영어회화2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 9. 합격자 발표 : 2001. 9. 5(수), 09:00

### 10.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0를 부여함

### 11. 유의사항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을 불허함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 교무처

## 가을학기 외국어특강

### 10주 과정 외국어 강좌

- 영어회화 (13명 정원)
  - 한 주제들에 대한 글쓰기 연습
  - 강 사 :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원어민 전임교원
  - 시 간 : 오전 9:00-10:00 (월,화,수,목 : 중급반) 오후 5:00 - 6:00 (월,화,수,목 : 기초반)
  - 수강료 : 15만원
  - 강 의 : High-Beginning,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
  - 강 사 : Paul Sather
  - 강 의 : Interview, Meeting & Presentation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
  - 수강료 : 15만원
  - 강 의 : Business English (13명 정원)
  - 강 사 : James Crossman
  - 강 의 : 시트콤 "FRIENDS"를 통한 영어 읽기, 듣기, 어휘, 말하기 능력 향상
  - 강 의 : Interview, Meeting & Presentation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
  - 수강료 : 15만원
  - 강 의 : Writing & Speaking (13명 정원)
  - 강 사 : 중급반-Darcy Shipman 기초반-Mary-Anne Willmott
  - 강 의 : 1:1 Error Correction을 통하여 다양
- Screen English (20명 정원)
  - 강 사 : James Crossman
  - 강 의 : 시트콤 "FRIENDS"를 통한 영어 읽기, 듣기, 어휘, 말하기 능력 향상
  - 시 간 : 오후5:00-6:00 (월,화,수,목)
  - 수강료 : 15만원
  - 강 의 : 일본어 회화 특별강좌 (13명 정원)
  - 강 사 : 김은옥(일본과 강사)
  - 강 의 : 기초문법과 다양한 실용회화표현을 익히는 강좌
  - 시 간 : 오후 6:00-7:00 (월,화,수,목)
  - 수강료 : 15만원

### 5주 과정 영어강좌

- TOEFL (40명 정원)
  - 강 사 : 오금동(언어연구교육원 전임)
  - 강 의 : CBT(Computer-Based Test) 및 Practice Tests로 진행되는 토플 강의
  - 시 간 : 오후 6:00-7:00 (월,화,수,목)
  - 수강료 : 7만 5천원
  - 강 의 : TOEIC (40명 정원)
  - 강 사 : 나용준, 이정일, 안지혜, 정형숙
  - 강 의 : 유행병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 TOEIC강의
  - 시 간 : 기초반 오전 8:00-9:00 (월,화,수,목,금) 오전 9:00-10:00 (월,화,수,목,금) 오후 6:00-7:00 (월,화,수,목,금) 집중중급반 오전 8:00-9:30 (월,화,수,목,금)
  - 수강료 : 기초반 8만5천원, 집중중급반 12만원

○ 특강기간 : 10주과정 2001년 9월 5일 - 11월 23일

5주과정 2001년 9월 5일 - 10월 16일

○ 접 수 처 : 해외관 언어교육연구실 사무실

## 언어연구교육원

http://today.dongguk.ac.kr ☎ 2260-3471

국내 공공도서관 실태와 정책과제 **논단**

# ‘문화민국’ 기반은 도서관 콘텐츠 확충

흔히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평가할 때 도서관을 예로 드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접근할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우선 도서관의 수부터 살펴보자. 이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통틀어 공공도서관이 4백여개 밖에 없다. 이는 국민 12만명 당 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수준이다.

장서량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공공도서관 도서관구입 예산은 50억원이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백50억원을 합해도 2백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도서관구입 예산은 무려 2백75억원이다. 우리나라 전국 4백여개 공공도서관 도서관구입 예산이 외국의 대학 도서관 한 곳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렵사리 찾아간들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려운 곳이 우리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임은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지난 8월 6일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공공

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을 국정사업으로 삼아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천개소로 증설하고 콘텐츠 예산을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것이다.

## 적극적 정책마련 절실

10년동안 지금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6백개소 증설하려면 적어도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콘텐츠 예산까지 합하면 연간 약 5천억원이 든다. 얼핏 보기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결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액수가 아니다.

정부는 정보고속도로를 추진하며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막상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속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훌륭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려면 책에 주목해야 한다. 콘텐츠의 80%는 책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교실’을 만들기 위해 드는 예산은 1조4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 58%, 중학교 79%, 고등학교 92%이며, 아예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30%나 된다. 평균

장서는 4천권,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 정도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장서수가 우리의 6배나 되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크게 나은 것이 없다. 연간 도서 구입비가 극히 미미해 ‘있는 책보다 없는 책이 더 많다’는 비아냥섞인 말까지 듣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의례 강의에 필요한 책은 사서 보려나 생각하며, 대학생들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양의 책을 도서관에서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개인 연구자들이 국내의 책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비용도 엄청나다.

## 도서관구입 예산 증액 필요

현재 우리나라 출판계는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책을 위주로 생산한다. 학술, 교양 서적은 출간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문·사회 교양 분야의 고급 연구물의 저술 및 출판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사회의 지적 풍토는 고갈되고 있다. 각 학문 분야의 양서 출판을 촉진하기



노취영숙 책임은사회만들기 사무국장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증설, 도서관 콘텐츠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필수 구입 도서의 공적 추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양서를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으로 구입한다면 적어도 적자는 면하게 되므로 출판인들은 서로 다투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은 주머니 사정을 염려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 및 지식·정보 서비스 기관이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은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은 정부에게 공공도서관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역마다 제대로 설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서비스 하는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때까지 국민들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시민단체의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 지자체 위기, 시민권력이 나선다

## 다수 단체 참여 천명 ... 찬반 둘러싼 논란 치열

지난해 4.13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시민단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개혁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내년 6월 진행될 지방선거에 직접적 참여를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백여명의 ‘녹색후보’를 내기로 했고 녹색연합, 서울 YMCA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인사들도 지방자치개혁연대를 설립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낙천·낙선 운동과 같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에만 그치는 ‘네거티브 전술’이 아닌, 직접 정치무대에 등장해 새로운 주체로 자리잡겠다는 ‘포지티브 전술’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지방자치제의 위기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단체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은 “지방사회는 시민사회의 주 영역”이며 “지방자치제의 문제들을 시민단체의 감시역할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 같다”

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 의원들의 자질시비도 끊이지 않아 임기 중에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기초의원만 해도 전체의 6%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반대연대만만치 않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이른바 메이저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선시민연대를 계승해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이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시민운동단체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선거참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 논쟁을 더욱 확산시켰다.

논란의 초점은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진입하더라도 도덕성,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분교 법학과 김상경 교수는 “현실정치에 직접 개입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정치현실에서 시민단체의 선풍적 정치개입은 자칫 시민단체마저 ‘제3의 권력기관’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선거참여와 정치세력화를 동일시하는 논리를 경계한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채 피상적인 사실만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또한 순수성 훼손론이 ‘정치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영역인데 왜 시민단체가 침범하려 하는가’라는 정치권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논란은 시민운동 단체들의 다양화를 불러올 것

로 보인다. 녹색연합 김태균 조직국장은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일부는 사회감시 활동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 초기의 기대를 저버린채 현재처럼 중앙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고 불법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 사설

### 통일의 본질적 흐름을 짚어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 3자가 민간차원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8.15 민족통일 대추전'을 평양에서 성대히 치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여부터 만경대 방문록, 사전회합통신 등 연이어 쏟아져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만경대 방문록 사건과 관련하여 분교 강정구(사회학)교수가 경찰에 구속 조치됨에 따라 학내의 찬반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무릇 통일운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함께 가야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으로 전체운동을 그르치게 해선 안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행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평양에서 개최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교류였던 만큼 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우선 노동자, 농민, 여성, 종교계 등 포괄적인 계층·부문별 토론회로 민간교류의 질을 한단계 높인 것이다. 또한 내년 8.15 행사는 서울·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한다는 것과 북측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합의는 점이다.

이러한 통일의 열기 속에서도 남북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거대한 폭발연료의 '소설쓰기' 행태는 이미 8.15 행사와 관련해 조선·중앙일보가 1면에 과장, 오보한 사실에서 또다시 증명되고 있다. 또한 개폐대상으로 논의됐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틀어막고 고무·찬양 혐의와 같은 내용들을 논하는 데 일부 폭발연료이 앞장서는 건 더욱 기막힐 노릇이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힘입어 정치인들의 색깔논쟁이 고조에 달하고, 민간통일운동 단체들이 조직 안에서 분열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지역적인 문제에 한없이 돌보기를 들이대고 있기 보다는 '민족화해'와 '평화구축'이라는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흐름의 맥락을 짚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학생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사회과학과 철학 등 현실과 제도속의 담론을 멀리하고, 정신의 해방구이자 현실을 잊게 하는 판타지 문학이나 무협소설 등을 선호한다. 이는 얼마전 교수신문의 전국 대학 상반기 도서대출 현황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최다도서 대출 10권 중 8권이 판타지 소설이고, 전북대의 경우 9권이 판타지 소설로 나타났다.

도덕이나 의무에 얽매는 것을 싫어하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사이버 세상과의 소통에 익숙한 세대들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독서경향은 학생들의 맞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도서관의 도서부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출판사의 도서순위에 의존해 도서를 구입하고 있어 도서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서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에 대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목록과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 있는 사서의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고, 감시자의 역할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에 학생들을 올바른, 새로운 세계로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한국 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책이 없으니 책 읽는 사람이 있을리 없다. 책이 있어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은 머리 쓰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만 집어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대학독서문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백승석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동약로

트랜스학번



“3학년이면서 01학번이라고요?”  
 “나는 00학번인데, 그럼 선배라고 해야하나? 후배라고 해야하나?”  
 개강하면서 맞이하는 새로운 얼굴 편입생들. 이들을 대하는 학생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00학번과 편입한 01학번 학생은 학년으로 보면 00학번이 선배지만 학번으로 보면 후배인 이상한 관계가 성립된다.  
 학번으로 선후배 관계를 따지던 학생들에게 편입생 학번이 혼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매학기 편입하는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년에 맞지 않는 학번으로 편입생이라는 꼬리표가 부각되고 선후배간의 구분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편입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졸업증서서만을 요구하는 기업체의 서류전형에서는 4년제를 2년 만에 졸업한 것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편입생에게 신입생처럼 입학년도 학번을 부여하는 제도 때문이다.  
 학교는 장학금 통제·등록금 수입과 지출 통제 등 각종 통제작업이 년도별 학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편입생 입학년도 학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편입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편입 학번 제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행정상 문제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고려대 등 대부분의 대학은 편입생이 해당학년 학번을 사용하도록 해 편입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편견을 의식하지 말고 편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십시오”  
 지난 21일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병식(화학공학) 교수가 한 연설 중 일부이다.  
 몇 년 동안 다른 학교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학교에 낯설어하는 학생들. 이들이 편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를 없애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통일대행진단 동행취재기

# 통일의 기수되어 전국을 누비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보름간 전국을 누비며 '통일'을 이야기하는 통일대행진단. 줄이진 분위기에 따라 합법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대중 앞에 나선 이들의 활동을 담고자 지난 달 31일부터 16일까지 통일대행진단 민족대단결단(서군)과 전국 100여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함께 생활해 보았다. 통일대행진단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조국통일의 그 날을 접쳐 보면 어떨지.

편지자

출발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분명 종전의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를 알았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대행진단(이하 행진단)에게 지급된 두정의 티셔츠와 이들이 타고 이동할 14대의 관광버스는 대원들을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통일대행진단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일흔 아홉에 행진단 총단장을 맡은 한국민족중요회의회 한양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목표와 역할을 규정했다.

아직도 ‘철의 전사 통선대’가 더 친숙한 이들에게 대중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알린다는 임무는 ‘통일대행진단’이라 새롭게 불리는 이름만큼 설레고 낯선 것일 수밖에 없었다.

## 민족 대단결 결의높여

통일대행진단은 8월 1일부터 보름간 6.15공동선언실현단(동군)과 민족대단결단(서군)으로 나누어 진주와 목포에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갔다. 이중 서군은 짙은 여름이 깔린 새벽 목포에 도착해 지역민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의 고향답게 6.15공동선언에 대한 반응이 남다른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동이 트고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진단 일정에 돌입했다.

서군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전북, 전남 지역의 대학생들과 반미여성회, 청년조직 등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역단위별로 중대가 꾸려지고 서울지역의 경우 그 안에 3개 소대로 조직화 되었다. 이렇게 전체 조직구성을 이룬 뒤 각 소대로별 먼저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간동안 지켜나갈 규율을 정하는 등 체계를 갖추었다.

목포역 광장앞. 평벌아래 불같은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한모금의 물도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 먼저 마시길 권하고,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는 대원에게 자발적으로 달려가 교대해 주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철저히 개인주의를 배격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대원들이 조금씩 몸으로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순천에서 25명의 소대원이 나눠먹는 점심메뉴는 모두들 웃음 짓게 만들었다. 육포조각, 레모나1봉, 금메달초콜릿, 박카스1병 등을 장난스럽게 나눠먹고 고픈 배는 물로 채

웠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기풍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이후에도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

대부분 심야에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수면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해갈 수록 조는 대원들이 늘어갔다. 버스 안에서 졸던 눈을 비비며 일어난 행진단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인사 석방’을 외치며 광주교도소 앞으로 우루루 달려나왔다. 그러나 교도소 문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수의 전경들이 방패를 번쩍이며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다. 뜨거운 햇빛과 지루한 싸움의 시간. 4시간째 접어드는 항의방문이 좀처럼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곁에 동지가 있고 굳은 신념이 있기에 그들은 흐르는 땀방울도 신명나게 흘릴 수 있는 듯했다.

광주시내 가두행진을 벌이고 한나라당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한창 격렬하게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연신 셔터를 눌러대던 한 남자에게 순간 이목이 집중되었다. 사진찍는 사복경찰로 잠깐 오해받았던 유병문(불교학, 00졸) 씨는 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옥고까지 치른 정력의 민족21기자였던 것이다. 그날 밤 유씨는 통선대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오해를 풀고, 굶주린 대원들에게 초코파이와 탄산음료를 남기고 돌아갔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8월을 보내던 통일대행진단원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남한인사 300여명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게된 것은 4일째 군산머군기지 앞이었다.

곁에 출사했던 새내기 기자가 통일이 앞당겨진 것 같아 기쁘지만 여전히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며 행진단을 경험하다보니 무엇이 걸림돌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했다.

## 한톨의 밥알도 남김없이

행진단 활동 중 가장 예민하고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는 단연 ‘먹는’ 문제였다. 배달 도시락을 주로 하여 김밥이나 초코파이로 끼니를 때우면서 대원들은 맛있게 배불리 먹고싶은 욕구에 시달려야 했다. 새벽 2시경 익산 원광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대원들을 감동시킨 사진이 벌어졌다.

전북지역 통선대원들이 손수 준비한 밥 때문이었다. 이미 도착예정시각을 2시간 남김 상태였음에도 온기와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다. 400여명의 끼니를 손수 장만한다는 것이 보통 정성이 아님을 알기에 진한 우정에 감동하며 대원들은 한톨의 밥알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다.

열흘째 찾은 푸른 하늘과 바다가 있는 매항리. “농활 온 것처럼 푸근해요” 얼마전 농활을 경험했던 대원이 “미군폭격기의 소음만 없다면 살기 좋은 곳인데 안타깝다”며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마을의 분위기나 대원들을 행복하게 했던 아이스크림, 주민들과 어우러져 흥겨웠던 문화

제까지 지난해의 매항리와 큰 차이가 있어 생소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렇듯 전국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 퍼포먼스·문예활동 등의 시민선전전도 하고 양심수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 항의방문도 하며 통일운동을 펼쳐가던 통일대행진단은 13일 연세대로 들어와 2001민족통일대축전에 동참했다.

올해 행진단은 과거 과격한 방식에서 탈피해 정치적, 물질적으로 보장된 여건속에서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행진단 활동을 평가할 때 일정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나 지도부의 의견마찰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대중선전활동에서 미진한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

‘통일열차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문구를 적어둔 한 대원의 일기장에는 행진단 활동기간동안 한층 성장했을 고민들도 담겨있을 것이다.



### 사진 = 사진부

1 통선대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는 대원들. 이들의 결의는 하늘을 향해 던진 모자만큼 높기만 하다.

2 대형 단말기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학생들. 그 선두엔 언제나 통선대가 있다.

3 MD반대의 의지를 담아 던지는 물풍선. 물풍선이 터지면 MD음모도 사라지려나.

4 매항리 통일한미당에서 한 대원이 몸으로 주민들을 향해 표현하고 있다.

5 이 순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영차영차. 노동자와 학생통선대가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진다.

6 '뒤통수' 시민들에게 선전을 하고있는 대원들. 통일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우스꽝스러운 몸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7 광복절을 앞둔 14일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일본반대를 표현하는 마스크에서 비참함이 느껴진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트랜스젠더, 세상 밖으로

# 성, 그 무한한 다양성의 스펙트럼

## 인류역사 함께 해온 트랜스젠더, 흑백논리 벗어나 제3의 성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며, 이들 중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고 부른다. 이는 생물학적 동성에게 육체적·감정적 사랑을 느끼는 ‘동성애자(Homosexual)’ 선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장애 ‘간성(Intersexual)’ 반대 성의 복장과 외모를 취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이성복장자(Transvestite)’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근 하리수라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가 화제가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성을 바꾸는 젠더 역전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왔다.

고대 유럽, 아시아, 중국 등지에 는 거세를 한 트랜스젠더들이 일반적이었다. 후에 중세로 접어들자 유럽 기독교 국가는 미성을 위 한 성악가의 거세 외에는 성전환 수술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인도, 태국 등 동남 아시아 국가와 중국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 트랜스젠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정받았지만, 중세로 접어들어 서구 기독교 윤리의 지배 속에서 핍박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존재로 경원시되 었던 트랜스젠더가 새롭게 재조 명되면서, 트랜스젠더의 인권 과 성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남성 아

니면 여성이라는 흑백논리가 트랜스젠더로 하여금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까지 성의

‘제3의 성’이다.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성적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에 집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랜스섹슈얼이 되는 것은 상당한 신체적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그 럽에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또한 과도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치중해 위험도 불사하게 된다.

프랑스 작가 시몬느 드 보바르는 ‘사람은 여자 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자로 길러지는 것이 다’ 라고 말했다.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나뉘어지는 우리의 성체계가 얼마나 미약한 토대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주어진 성만을 인정하도록 학습받았으나, 그 논리에 반기를 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트랜스젠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성 정체성의 스펙트럼 속에서 제 색깔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들을 편견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이분법적 사회 구조에 편입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획일화된 성체계를 깨나가는 키워드는

# ‘이반’을 외면한 ‘일반’의 법

## 군대·사업자등록·성폭행문제 심각... 소외된 소수인권 존중해야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민주당 김종권 대표의 주장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트랜스젠더들은 원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권리가 제한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성과 자아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트랜스젠더의 50~70%가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편, 트랜스젠더 여성은 스스로가 느끼는 정체성에 관계없이 군필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남성은 사업자 등록과정의 혜택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다수 ‘일반’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제정된 법률안에서 ‘이반’들은 자신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몇년 전 트랜스젠더 여성이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고 사회일반의 평가를 고려할 때 형법상 강간죄의 보호대상인 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가해자에게는 ‘강제추행죄’라는 선고를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이 성을 구분짓는 기준을 성염색체에 근거한 ‘생물학적 성’에만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지난 98년 ‘민주법학’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논문을 기고했던 최정화 씨는 “‘젠더’라는 개념자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법적인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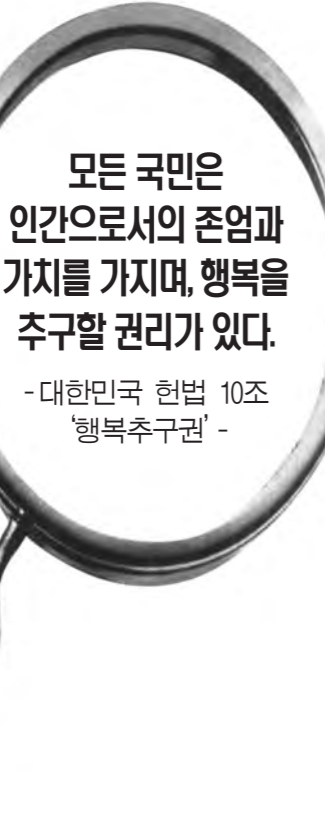
일본, 스위스 등의 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을 소수인권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고, 지금은 구체적 사안도 입법화 돼있다. 이것은 호적정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

려하는 것만큼 트랜스젠더 개인이익과 사회이익의 충돌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8년까지 호적정정을 승인한 판례가 다섯 번 있지만 체계화 된 법안이 없어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보장이 다를 수 있다.

선천성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이나 기형적인 몸을 수술하는 것은 비판 받지 않지만, 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 지탄의 대상이 된다.

법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것이다. 새로운 성에 대한 법적인 권리인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들의 인권은 더욱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sellyone@dongguk.edu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기까지

## 의학적 관점에서 들여다 본 트랜스젠더 탄생과정

인간의 성 결정은 성염색체중 특히 Y염색체의 존재 여부와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의 작동 여부에 의한다. 이런 유전적인 성은 궁극적으로 외부 성기, 몸매와 같은 표현형적인 성, 성특이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조절하는 정신적인 성(뇌의 성)의 형성을 유발한다.

### 선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잘 알려진 부신성기증후군(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은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효소인 CYP21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과도한 남성호르몬 분비로 인해 발생한다. 이 경우 남자는 이상이 없지만 여아의 경우 남성의 귀두에 해당하는 클리토리스가 과다 발육하여 귀두처럼 보여 남자로 오인받기 쉽다. 또 골격계의 조숙과 굵은 목소리, 매일 면도할 만큼 빠른 수염 성장이 나타나고 가슴 발육이 없게 된다. 이 증후군의 발생빈도는 약 4만건 출생당 1명 정도이다.

한편 남자 2만명 당 1명 꼴로 나타나는 안드로젠항성증후군(androgen resistance syndrom)은 안드로젠 수용체 유전자가 결실이나 점 돌연변이에 의해 작동하지 않아, 표현형은 여성의 2차성징을 나타내지만 생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음순 안쪽 또는 복강에 정소가 위치하며 난소가 없고, 음모가 없거나 빈약하며 끝이 막힌 질을 가지고 있다.

### 성 결정 과정에 내분비 물질 영향

유전자 이상은 없지만 성적체성을 형성하는 뇌의 성 결정 과정에서 이상을 보여 자신이 반대의 성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임신부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되어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전달된다. 이때 여아 뇌의 남성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로는 전쟁, 가족의 사망, 강도의 위협 등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중에 출생한 아이들중 성인이 되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반대로 임신부가 속칭 환경호르몬인 내분비 교란물질들을 다양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남아 태아의 뇌가 여성화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구조 유사 작용능력이 비슷하므로, 남성이 대량 섭취할 경우 여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로 일본 남성들의 정자수가 지난 5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임신한 쥐에 식물성 에스트로젠을 투여한 결과 출생한 수컷 쥐가 성체가 되어서도 암컷처럼 교미를 ‘당하는’ 자제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 호르몬 투여에서 수술까지

여성화를 추구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에스트

로젠을, 남성이 되고자하는 트랜스젠더는 안드로젠을 주사해야 한다. 그러나 주사만으로는 원하는 성기와 체형을 가질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성형수술을 희망한다.

남성을 여성형으로 바꾸는 성형수술의 경우 단순히 기존의 음경을 제거하고 인공적인 질과 클리토리스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다.

여성호르몬 투여시 어느 정도 유방이 커지기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유방확대수술을 원하기도한다. 또 턱이나 광대뼈 등 남성형의 안면 골격을 여성형으로 꾸고 다듬는 성형수술도 필요하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은 그 반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결과 역시 덜 만족스럽다고 한다. 수술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통해 확고한 성적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성호

상명대 생명과학부 교수



## win-win 해법 경제학

최근 일어난 일련의 파업사태와 과격한 노동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왜 이런 노사상호간의 자기파괴적인 대립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보다 좋은 해결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파업의 위험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기간중 그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이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 심한 경우 기업폐쇄의 상황에까지 도달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피해자가 되며,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일자리마저도 잃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협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당사자간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간 선호차이가 있는 경우 교환(exchange)을 통해 이익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쇠고기 한 근을 육식주의자의 채소 한 단과 교환하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간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차이가 있는 경우 조건부 합의(contingent agreement) 방법을 활용한다. 오페라 가수와 극장경영자간의 공연료 책정이 그 예가 된다. 오페라 가수는 공연에 많은 관객이 올 것이라 기대하여 높은 공연료를 요구할 것이며 극장주는 빈자리가 많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낮은 공연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가수의 공연준비에 드는 실비만을 미리 지불하고 공연이후 관람자수에 따라 그 수입을 배분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게되면 양당사자들의 이해는 증진된다.

셋째, 필요의 성격에 따른 보상의 배분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젊은 회계사와 중년의 부유한 미혼 변호사가 합작하여 자문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젊은 회계사는 당장의 현금소득을, 중년 변호사는 현재 소득은 작더라도 미래의 수입에 대한 높은 배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사에게는 현금보상을, 변호사에게는 높은 비율의 미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시간경과에 따른 당사자간 할인율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김 조급씨와 이 만만디씨의 예를 들어보자. 조급씨는 미래소득에 대한 할인율이 크고-즉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현재가치가 작고-만디씨는 작기 때문에 만디씨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먼저 조급씨에게 주고 이후 발생할 소득을 만디씨에게 주되 최대한 할인율의 차이까지 보상해주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되는 거래가 된다.

그러면 왜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는 이러한 당사자간 이해차이를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근로자들과 경영진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과 설사 신뢰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간 차이를 활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조해내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 고수동정

▲김영민 (영문학)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료조사와 영미시 및 현대비평이론 전문가 자문 협의회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방문.

▲송민규 (반도체과학)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논문 발표 및 첨단기술정보 교류 위해 핀란드 헬싱키 2001년 ECCTD 방문.

▲장연수 (토목환경공학)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철학대회(ICSMGE)에 참가.

▲박상진 (국악)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경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식 참석.

▲김응기 (국악)  
=오늘(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팔라프 박물관 개관 초청공연차 독일 뒤셀도르프 방문.

# 200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 박사학위 (총63명)

### 철학 (1명)

▲오준호=사명유정(四冥惟政) 연구

### 문학 (8명)

- ▲전영주=1950년대 시의 전통주의 연구 -김관식, 박재삼, 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 ▲김경자=D. H. Lawrence의 사회관과 문명비평 -The Rainbow, Women in Love, The Plumed Serpent를 중심으로-
- ▲정성연=윌러스 스티븐스의 시에 제시된 시적 실재로서의 탈창조
- ▲홍명숙=초등영어 교육과정 '의사소통 예시문' 연구
- ▲노병환=고대 한·왜관계연구 -한반도에서 활동한 왜의 위치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교=나당전쟁사 연구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전쟁의 추이-
- ▲김영애=통일신라조각과 나라조각(奈良彫刻)의 비교연구
- ▲신대현=한국 고대 사리장엄(舍利莊嚴) 연구

### 교육학 (1명)

▲정혜정=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의의

### 법학 (4명)

- ▲한종욱=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 ▲김대원=한국의 경찰정신에 관한 연구
- ▲강맹진=한국의 공화보안에 관한 연구
- ▲김병준=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정치학 (1명)

▲송의달=일본의 대미 외교에 관한 연구

### 행정학 (6명)

- ▲김기유=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시설을 중심으로-
- ▲김현기=국회 예산심의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조봉래=행정부 자체감사체제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사례를 중심으로-
- ▲조운행=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의 성과분석
- ▲오기봉=노인차매정액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치매관련 대상집단을 중심으로-
- ▲이현숙=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정부와 NPO의 협조관계에 관한 연구

### 연구

### 경영학 (6명)

- ▲강희석=신념비교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류제품을 중심으로-
- ▲황세욱=국제 전략적 제휴의 형성요인별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박인호=기술의 외적접근성과 내적흡수력이 기술이전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상호=ERP 시스템의 도입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입요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 ▲김지용=무연계약에 있어서의 협상행위 및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김선용=재무지표의 신용등급 예측능력에 관한 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이학 (10명)

- ▲이원철=금속열화학합법으로 제작된 Metal-Oxide-Silicon 구조 특성
- ▲진 의=금속 산화물 박막의 광증감성에 관한 연구
- ▲한승준=약물전달계를 위한 가수분해성 폴리에스테르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 ▲변효섭=경제통계 시계열을 이용한 경기변동 측정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종합지수를 중심으로-

- ▲가강협=송이의 생장 특성과 기생균에 관한 연구
- ▲유병규=자기공명혈관촬영술상 전교통동맥 부위에서 동맥류로 오인되는 혈류역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 ▲유정선=한국산 늑대거미과(거미목, 늑대거미상과)의 속간 계통과 분류
- ▲강복정=시설청소년을 위한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을 중심으로-
- ▲김향숙=대학생의 애착·사랑유형에 따른 선행동
- ▲이옥희=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 -사적연구를 중심으로-

### 농학 (2명)

- ▲최이진=생장조절제 처리 및 인위돌연변이 유기에 의한 *Eriococcus*속 선인장의 대목활용에 관한 연구
- ▲강규영=백색부후균을 이용한 목재의 Kraft Pulping 생물 전처리 효과

### 공학 (4명)

- ▲오승현=기가비트급 고속 라우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속 IP 검색기법
- ▲민준식=분산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접근지연을 줄이기 위한 이중 슬롯팅 구조
- ▲조경은=확률적 정구분법 추론에 근거

### 정보를 적용한 사람 몸 동작 인식

▲장홍순=연구자식의 이방화와 오버행을 고려한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특성 해석

### 한의학 (19명)

- ▲염용하='금계요략'의 형성 및 체계에 관한 문헌적 연구
- ▲이성우=합환피(合歡皮)의 간독성 저해효과 및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 ▲김봉수=복분자류(覆盆子類)가 백색(白鼠)의 배란과 난소에 미치는 영향
- ▲김성배=대황, 유향, 몰약의 도포가 화상 피부 치유에 미치는 효과
- ▲홍시내=Effects of complex extracts having *Drynariae Rhizoma* on suppression of collagenolysis and bone resorption in mouse calvarial osteoblasts
- ▲김선영=원취의 중대뇌동맥 결찰로 유발된 뇌허혈에서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과 광향정기산(藿香正氣散)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효과
- ▲한기선=구미정심원(九味淸心元)이 저산소증 유발 배양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 ▲윤종영=제조외의 치매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 ▲손현주=Ethanol 및 Cimetidine에 의해 유도한 발기부전 원위에서 복분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
- ▲김성일=Immunosuppressive Activity of Cervi Pantotrichum Cornu Herbal Acupuncture on Type II Collagen-induced Arthritis

▲배건태=fMRI를 이용한 조혜철(KI6) 자침이 대뇌피질 운동영역의 활성화변화에 관한 연구

- ▲김동욱=Inhibitory Effects of Bee Venom Herbal Acupuncture(BVA) on Collagen Induced Arthritis in Rats
- ▲박신화=하고초(夏枯草) 약침액(藥鍼液)이 암예방 활성에 미치는 영향
- ▲류준선=황기 약침액이 발암과정의 개시와 진행에 미치는 영향
- ▲윤병국=대시호탕(大柴胡湯)이 Alloxan으로 유발된 고혈당 백서에 미치는 영향
- ▲정성이=소요산(消遙散) 및 구성약물군(構成藥物群)이 항산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 ▲이상봉=방기황기탕 투여 및 운동부하가 단식실시 원취의 근육내 GLUT-4 및 혈중 지질대사와 호르몬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최은규=Protective effects of CMSD on ischemic damage and No-derived neuronal damage in mice
- ▲신용현=가감소합향원(加減蘇合香元) 향기 및 간보단이 중추신경 억제 및 뇌신경수용체 활성에 미치는 영향

### 의학 (1명)

▲안재홍=AMPA Receptor-Induced Neuronal Cell Death in Rat Hippocampus Following Transient Global Ischemia : Relationship to Calpain and Caspase-3 Expression

## 정보통신부 주최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주관

# 제1회 전국고교생 정보화 능력개발 경진대회

창의적인 응용S/W와 홈페이지 작품을 공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경진전을 개최합니다. 국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제1회 전국 고교생 정보화 능력개발 경진대회"에 전국 고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분야

부 문	대회분야	비 고
공모전	· 응용 S/W개발 PC에서 작동 가능한 멀티미디어 타이틀, 게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교육용·업무용 프로그램 등의 창작품	개인 및 팀 (3명이내) 참가
	· 홈페이지 구축 분야 창의적인 다양한 주제의 홈페이지 구축 창작품	
경진전	· 인터넷 정보검색 분야 인터넷을 이용한 주제별 정보검색 능력의 경진	개인참가

### ■대회참가

- 공모전 신청서 접수: 2001년 8월 16일(목)~9월 15일(토)
- 공모 작품제출: 2001년 10월 13일(토)~10월 19일(금)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 가능)
- 입상작품 발표: 2001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대회 홈페이지에 발표
- 입상작품 전시: 2001년 10월 24일(수)~26일(금) 동국대학교 혜화관 전시장
- 참가신청서 접수: 2001년 8월 16일(목)~9월 30일(일)
- 경진일시  
▶예선: 2001년 10월 21일(일) 오전 10시(동국대학교 혜화관 5.6층)  
▶본선: 2001년 10월 24일(수) 오후 5시(동국대학교 혜화관 5.6층)

### ■시상내역

구 분	대회분야	시상내역
공모전	· 응용 S/W 개발 · 대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및 부상(100만원) · 특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및 부상(100만원) · 금상: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장상 및 부상(100만원)	대상1명(팀), 특상1명(팀), 금상1명(팀), 은상2명(팀), 동상3명(팀), 장려상(팀), 노력상 5명(팀), 유망재상(팀)
	· 홈페이지 구축	대상1명(팀), 특상1명(팀), 금상1명(팀), 은상2명(팀), 동상3명(팀), 장려상(팀), 노력상 5명(팀), 유망재상(팀)
경진전	· 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 및 부상(해외연락) · 특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및 부상(50만원) · 금상: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원장상 및 부상(50만원)	대상1명, 특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 5명, 노력상1명

### ■대회 문의처

- 대회 홈페이지: <http://www.dugsi.ac.kr/contest>
- 전자메일: [contest1@dongguk.ac.kr](mailto:contest1@dongguk.ac.kr) / [contest2@dongguk.ac.kr](mailto:contest2@dongguk.ac.kr)
- 전화: 02)2260-3528~30

### ■후 원

미래를 여는 사람들(supermagic.co.kr) · 두기플러스(dugi.co.kr) · 중앙일보 · 예뻐서트 송광정보기술(sk-it.co.kr/csc0119.co.kr) · 한국IT 벤처 기업 연합회(pica.or.kr) · 디유넷(dunet.co.kr) · 지엠넷(gmnet.co.kr) · 박문각(parkmungak.co.kr) · 서일시스템(seoiln.com) · 에이앤에스(ans.co.kr) · 한글과컴퓨터(haansoft.com) · HOWOW · com · 삼테크(samtek.com) · 디엔시스템(spectrum4u.co.kr) · 인터컴(intercom-pco.co.kr) · ICOM MEDIA(iocomhansori.co.kr) · 신세기통신(shinsegi.com) · 삼성전자(sec.co.kr) · 네오그래픽(neographic21.co.kr) · 이한디지탈리(digitally.co.kr) · youngjin.com · 호스트이엔아이(hosteni.co.kr) · 유리정보통신(youlinn.co.kr)

이색졸업자를 만나

# 44년 세월넘어 마음은 아직도 청춘



성 성 용  
응용생물학 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젊어진 것 같아”

“해화관, 동국관 자리는 모두 아카시아 숲이었지. 화림관 자리도 그렇고.”  
55학번으로 입학했다가 올해 손자뻘 되는 후배들과 함께 졸업을 맞은 성성용 동문.  
1999년 여름에 재입학하여 가장 감회가 새로웠던 것은 40여년동안 바뀐 교정이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참 좋아했어. 그 때도 등록금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라며 당시를 회상한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농장과 목장을 경영한 농가. 그 영향으로 그도 응용생물학을 전공하게 됐다.  
특히 사람, 동물, 식물 셋이서 서로 사랑하지는 의미를 가진 ‘삼애농장’은 자라는 동안 성성용 동문에게 정직한 사랑을 배우게 했던 곳이다.  
“식물이나 동물은 거짓이 없지.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네.”  
진솔하게 살자는 철학대로 그는 학교 생활 동안 힘들었던 점도 숨김없이 털어 놓는다.  
“사실 갑자기 공부하려니 답답하기도 했는데. 수업이 지루할 때도 많았지.”  
쉽지만은 않았던 늦깎이 대학생활 동

안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다름 아닌 아내.  
학교를 같이 다니며 필기도 해주고 교정에서 데이트도 함께 했다며 은근한 사랑을 늘어놓는 성성용 동문은 영락없는 우리네 보통 할아버지였다.  
“옛날 사람 풀이 다니다보니 신세대 친구들을 사귀 틈은 없었어. 하지만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젊어진 것 같아.”  
하지만 그에게도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 여학생들이 답배 피우는 모습에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계속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라며 손주들과 딸들도 전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간 학교생활 동안의 가장 큰 수확이라는 성성용 동문.  
이제 그는 훌쩍부른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드라이브나 여행이 새로 생긴 취미라는 그가 자랑스레 꺼내 보인 국제운전 면허증에서 새로운 삶의 열정이 묻어난다.  
(속)  
itsu@dongguk.edu

# 다운증후군 에 밝은 세상 보여준 ‘안경박사’



김 기 상  
행정학 석사 취목

“지금까지 배운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오래 안경을 쓰려고 한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정신지체장애인들 중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현재 시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본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김기상 동문은 지난 24일 ‘안경’을 이용한 시력교정이 정신지체인 행동에 미치는 변화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상 때 소아마비를 앓아 2급 장애인이기도 한 그는 언제나 ‘출 수 있는 사람이 돼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좀 더 밝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의사표현도 제대로 안 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시력을 검사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나오게 되면 여기저기서 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라구요.”  
그는 본인이 준비한 시력측정기구를 들고 시력검사를 진행해야하는 사실마다 일일이 찾아다녔다. 또한 정신지체장애

인은 문자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음을 감안하여 손가락이 그려진 ‘그림문자시표’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도수 있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 보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져요. 안경을 거꾸로 쓰고 다니며 애착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김기상 동문은 그 친구가 예전보다 계단에서 넘어지던 회수도 줄고, 앞드린 자세가 아닌 앉아서 글씨 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보는 기쁨을 모든 이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안경박사’ 안경점을 창업하여 15년간 경영해온 김기상 동문. 그가 일터에서 배운 경험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회복지지는 현장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안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김기상 동문은 공부하느라 잠시 미루어두었던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한다. 이문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의 활동을 그려본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 석사학위 (총462명)

### 일반대학원 (159명)

**문 학** 송성숙 허 훈 문옥련 배영희 이점숙 정명옥 배주현 이영진 김수연 최순배 김정은 유혜성 김은진 이미자 오희석 신사명 성창규 신덕용 차윤지 박운철 박승수 최선희 이은희 신은미 유경희 공규덕 위현정 진정환 안진용 박창용 이고경 김현수 이귀연 임형수 서민정 이운상 한정혜 이지은 임수연 최민아 이종승 임효수 심원권 현승훈

**교육학** 이지중 유상덕

**법 학** 권영복 임취운 박근배 김장곤 김재석 이상선 정재준 조현빈 조윤오

**정치학** 이창무 노재완 이석민 전광원

**행정학** 정득환 김운철

**경제학** 이무형 김창철

**경영학** 윤준섭 현호영 백전아 최효철 정혜은 유희석 윤혜준 이형식 지흥구 최은하 표정수 심형섭

**이 학** 이호상 정우준 박정모 박철우 오홍배 윤성욱 최경달 최수정 이태희

**농 학** 차성원 김수정

**공 학** 유경철 이지형 이문교 한상우 김세주 김영태 김선희 예희석 변상돈 차정희 김용욱 우영수 유행수 박찬식 장원석 노정훈 최한식 김형우 권강오 방선애 김홍열 김버들 이경용 김혜련 최운영 김경철 이재성 김흥주 이태경 신주열 김준구

**체육학** 최경환

**가정학** 김진아 유정림 박혜운 이경희

**한의학** 하기태 이부태 김홍숙 김경훈 손명용 김종정 이성춘 김대영 최연국 김선강 김진규 신광순 김주경 정경호 이기택 배효상 임익섭 배창욱 안종찬 박태우 김근찬 서종훈 한경석 윤보현 조세왕

**의 학** 이종현 서영범 박태형 엄대운 임종범 황성수 백태선

### 불교대학원 (15명)

**문 학** 김명호 이호순 박희승 사회복지학 강은주 한영규 조영표 박재선 김명섭 양옥자 김기순 조당호 선경석 윤기욱 이주현 광경미

### 행정대학원 (58명)

**행정학** 김래선 김현철 노은석 박종문 박준희 부은희 신윤길 이철우 이한수 정보용 조익준 김남훈 김정기 배효경 심재환 정운영 도현승 박창규 오선경 오현근 이한만 조정래 조정우 채권석 한달우 황성재 권혁진 김기상 김동욱 김미혜 김부선 김영소 김용배 김유순 김철욱 남연식 노영환 박희원 안동만 양명희 양예홍 오수중 오인순 이병렬 이성두 이연희 전석한 정영순 조순욱 최홍수 하대선 허진호 홍성대 김미정 박경로 박용모 성길영 김선배

### 경영대학원 (35명)

**경영학** 한영수 허 장 김남숙 김영호

김용석 김일곤 김중우 김중학 박순천 박종영 안광중 양병호 윤여동 윤홍식 정병숙 정지철 성종원 강은숙 신성기 양중현 이민아 이유희 최유나 최재명 박희석 심광섭 심현천 여운현 정용우 최영철 홍재문 윤 진 유한중 이명구 남용택

### 교육대학원 (84명)

**교육학** 김욱기 이광석 조규호 조의구 김희승 박정근 설남경 오숙영 이경환 이말출 조혜진 홍재양 송길순 안은주 우원경 이장희 최영주 강운천 김용식 김은영 김종완 김혜순 문 철 민경신 박병선 박필준 서영희 윤상원 이영주 이정림 이 호 박노길 이상록 권정우 김응수 김재욱 김진진 김홍순 이방천 이시균 이영호 한대준 홍영주 손길환 안혜경 정광필 강희진 고영선 권희정 백계순 이상순 이승열 이주리 정선일 정현주 조병현 허광일 김재욱 김지운 민승기 서보훈 심의섭 이명구 홍혜선 김미연 김일훈 김현정 유원경 이광민 조운숙 주수연 권순필 김광민 최희정 탁현균 김미라 민경아 이미숙 이순영

이정현 권 진 김경아 이한생 장은실

### 언론정보대학원 (23명)

**경영학** 임혁민 김수아 김서영 김정준 **언론학** 양홍식 호천웅 김종현 표영준 김민철 강현희 고봉준 백성기 박인익 신영철 서정근 김 현 박성준 정동우 김동일 이근형

**문 학** 박상미 윤남지 송수현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35명)

**공 학** 윤주한 류재상 임철학 김지만 김영욱 이정균 임중섭 노춘배 송승훈 이종근 조재석 이교형 신희제 김외숙 홍순조 허석현 김선화 김현주 송유란 김도형 임홍철 박찬혁 민주리 윤호중 김재혁 김문욱 홍해자 박종열 이택구 김승완 박진우 조광남 장근석 손양호 박정희

### 문화예술대학원 (14명)

**문 학** 김영신 김창배 도우희 박계현 김정신 백백기 임자혜 이미성 양윤호

문미경 이양희 이철호 미술학 김영희 음악학 정남근

### 국제정보대학원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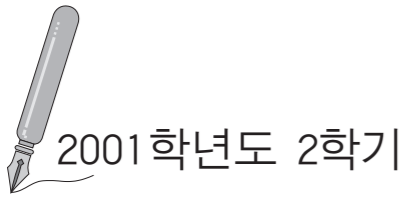
**공 학** 박기범 안병구 이민순 이성욱 이숙옥 이정남 이희욱 차승관 황성국 황영석

**법 학** 최영달

**상 학** 양진호

### 사회과학대학원 (27명)

**행정학** 손라조 김태형 송운환 김두만 **경제학** 한광희 **경영학** 송연홍 원도희 김경욱 **정치학** 조덕이 **사회복지학** 서종호 신인숙 안향숙 이영희 이용호 이종용 이형 임성희 정성애 김승고 김대혁 김지찬 김찬자 문승산 박봉전 서 강 **법 학** 이동욱 장효근



# 신규교수프로필



**박인성**  
(포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연세대 영어영문학 졸
- 본교 불교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중관학 전공



**임현식**  
(이과대학 반도체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물리학 졸
- 고려대 물리학 석사학위 취득
- Oxford대 고체물리 박사학위 취득
- 전 동경대 생신기술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 반도체소자 전공



**이오현**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신문방송학 졸
- 고려대 신문방송학 석사학위 취득
- NewYork주립대 communication 석사학위 취득
- Massachusetts대 communication 박사학위 취득
- 전 고려대, 인천시립대 강사
- 방송학(이론 및 실습) 전공



**김방욱**  
(예술대학 연극학과 부교수)

- 홍익대 미술학 졸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석사학위 취득
- Arizona주립대 연극학 석사학위 취득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청주대 연극영화학과 부교수
- 연극 및 극문학비평 전공



**박종호**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전임강사)

- 성균관대 사학 졸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Live Action 석사학위 취득
- 전 동서대 전임강사
- 영화영상제작 전공



**최병근**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조교수)

- 중앙대 연극영화학 졸
- 중앙대 연극영화학 석사학위 취득
- The American Film Institute Production Design 석사학위 취득
- 전 삼명대 영화학과 조교수
- 영화영상제작(비디오아트 포함) 전공



**김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 작곡 졸
- Boston대 Composition 석사학위 취득
- Stanford대 Composition 박사학위 취득
- 전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선정과제 연구원
- 컴퓨터음악 및 음향 전공



**진준현**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네트워크관리학과 전임강사)

- 본교 전자공학 졸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이티뱅크컨설팅 대표이사
- 네트워크 전공



**이준엽**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 삼지대 관광경영 졸
- George Washington대 Tourism Administration 석사학위 취득
- George Washington대 Higher Ed Administration 박사학위 취득
- 전 수원대 강사
- 관광레저개발 전공



**장성동**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졸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동국대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안과 전공

인터뷰에 응해주신 퇴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편집자

## 언제나 변치않는 스승이시여

새학기의 시작으로 분주한 교정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홍영백(사학) 교수. 그는 이제 강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한다. "막상 떠나려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떠나는 게 못내 서운한 듯 후회와 아쉬움을 털어놓는 홍교수는 좋은 학생들과의 만남, 역사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서운함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 가졌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과 인연을 맺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 그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역사의 분야가 끊임없이 변화했다고 회고한다. 특히 '미국사'에 열성이었던 홍교수는 미국의 가장 수직스러운 역사라고 생각되는 노예제, 사회구조의 특징이 담겨 있다고 보는 미국의 노동자와 그 역사, 미국 '힘'의 근원이라 할 미국기업사 등을 연구해왔다.



**홍영백 교수**  
(문과대 사학)

### “역사는 개인의 ‘일기’와 같지”

“한 나라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 있어 '일기'와 같은 거야. 한마디로 솔직해야 한다는 말이지. 일기를 거짓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를 공부하려면 무엇보다 거짓없이 순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으로 남겨 놓은 학문인 역사학도 완전할 수는 없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끊임 없이 연구하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홍교수는 일본이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한다. “역사학은 끝이 없는 학문이지. 하지만 내가 공부해 온 역사는 여기까지야. 퇴임 후엔 그림을 그려보고 싶거든.” 지금까지는 단순히 취미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그림만 그리고 싶다는 홍교수. 정년을 앞두고 길고 힘든 병후생활을 감내해 왔기에 그림을 통한 새로운 출발에 더욱 애착을 갖는지 모른다. 병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를 지닌 그에게 역사가 아닌 '그림'으로 이어가는 또다른 시작이 더욱 값진다.

(라)

hviolet@dongguk.edu

40년 전, 등록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진 한 학생의 후원자를 찾아주고자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교사가 있었다. '열린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살자'는 주안(周巖)이라는 호를 가진 황용호(회계학) 교수가 바로 그다. "학생들이 내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얼굴이 굳어 있어서 좀 어려워 해. 마음 속으론 많이 아끼고 다가가려 했는데 말이야." 그는 어렸을 적 옆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교직에 뜻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재직기간동안 이론 업적들은 누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95년도에 경영대 학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120학점'을 도입시켰지." 학생들의 소질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그는 교수 재임기간 동안 학생과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



**황용호 교수**  
(경영대 회계학)

### “남과 더불어 사는게 가장 중요”

었다. 일찍이 학부제를 도입시켜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주고자 하였고, 임기를 6개월 앞두고도 재학생과 동창회의 연계를 위해 힘써 온 것이다. 이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생활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회계학과는 시간이 흘러도 사

제기간의 정은 변함 없어."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계학과에 대한 자랑을 잊지 않는 황교수의 모습은 진정 학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스승이었다. 그의 가훈 역시 인생 철학을 대변하는 듯 독특하다. '민주시민 양성'. 그는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무조건 최고가 되려고 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세상은 남과 더불어 살아야지. 민주시민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예의범절을 지킨 다음 최고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이지. 우리 학생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황용호 교수. "퇴임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러 곳을 돌아볼거야"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평생 '주안'의 뜻을 간직하고 실천해 온 학자의 향기가 새삼 묻어난다.

(슬)

chof55@dongguk.edu

“내가 색약이라 말이지, 수학과 밖에 갈 곳이 없더라구.” 수학이라는 학문이 삶의 전부가 된 지금 담담한 마음으로 퇴임을 준비하는 이순(통계학) 교수. 학부시절 응용통계학을 전공한 이교수는 일찍이 응용통계학과 경제와의 연관성을 인지해 대학원 진학 후 경제학을 전공했다. “우리 학교에 오기 전 보건사회부 노동분과에서 일한 적이 있어. 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됐거야.” 이교수는 경제학과 사회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만큼 경제사회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보험통계학'에 뜻을 두게 되었다. "보험통계학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문이야.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보험통계강좌'의 본교 개설을 추진했지." 본교가 보험통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이교수의 노력이 뒷받



**이순 교수**  
(이과대 통계학)

### “학문의 길은 반정도 온결세”

침 되었던 것이다. "가장 보람된 일은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일테지. 그것이 '스승'의 한결같은 마음일걸세." 그래서일까. 이교수는 퇴임을 하는 지금,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더욱 많아진다. "이거적인 것을 즐기고 대우주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해." 이교수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의 중요성과 함께 급할수록 돌아가는 마음의 여유 역시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이교수는 퇴임 후에도 보험, 의사결정론,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학문의 길은 멀어. 나는 아직 반 밖에 못 온 것 같아." 40년 가까이 책과 더불어 살아왔지만 이교수의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다. 퇴임 후에도 본교에서 두 강좌의 강의를 맡게된 이교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할걸세.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학생들을 만나고 싶거든." 이교수의 마지막 말은 그가 얼마나 학생들을 아끼는지 보여준다. 새로운 학문과의 만남을 항상 값지게 여긴다는 이교수에게 퇴임 후의 삶은 한층 더 소중할 것이다.

(하)

sellyone@dongguk.edu

“풍도라는 섬에 다녀왔지. 모처럼 낚시도 즐기고 책도 여러 권 읽고 왔네.” 외딴 섬에서 안개비가 자욱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가올 퇴임을 준비하는 이의 여유로움이 아닐까.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장재호(수학교육) 교수는 인터뷰하는 것이 어렵하다고 결연쩍어하면서 퇴임 후 한적한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박한 꿈이라고 덧붙인다. "섬섬한 마음이 크지. 최선을 다해 가르치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 이웃 할아버지처럼 한없이 따뜻할 것만 같



**장재호 교수**  
(자연과학대 수학교육)

### “웁고 그림 분별하면 성공한 삶”

하지 않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실한 사람만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게야." 장교수는 신중한 자세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또 한 그는 얼마 전 다녀온 캐나다의 교육환경을 떠올리면서 "대학을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堂堂히 살아가는 모습을 분반야야 한다고 덧붙인다. "난 구세대야. 우리 말이 날더러 훈계가 많다고 그러더군. 그렇지 않지만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아.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내겐 커다란 보물이거든." 새소리에 잠을 깨고 흙 내음을 맡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라는 장교수. 그러나 그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란 직함과 추억할 수 있는 교직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은 삶을 것이다. 한적한 산골에서 한 곳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되어 살아갈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조)

beautifulangel@mail.dongguk.ac.kr

# 소나기

### 평양, 가실때 통일지사 오실때 범법자(?)



△평양 갈 땐 일일 보도 안하고 꼬투리 잡히니깐 빨간색 셔츠들이, 한국 언론은 왜 하나같이 요 모양 요 꼴이고...

△가자 말하는데 왜 가야하는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

△누가 통일전사라 부르고 누가 범법자라 부르는가?

△평양행사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하면서 지엽적 문제만 크게 얘기하는 언론이 문제다.

△전 민중적 통일정세에 발목을 잡는 언론과 보수인사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길 바란다. 통일은 현실이다.

△강교수님 힘내세요!

△다같이 노력해서 통일세상 꼭 만들어요.

△강정구 교수님 2학기 수업 꼭 들으 싶어요~!

△약속 좀 지키며 살았으면 한다. 정부의 방북허용에는 분명 조건이 있었다.

△남한엔 아직도 북쪽에 가지 못하는 50여 년을 기다려온 5000만의 국민이 있다.

△너무나 이기적인, 또 자기합리화적인 이번 방북 대표단은 통일을 늦춘 대표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기합리화와 말 바꾸기는 기성정치인과 한총련의 공통분모일 수밖에 없는가?

△남한이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래서야 통일하겠나?

△한총련의 또 다른 패러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이번 행사의 중요한 의미들이 법에 가려 희미해지는 것 같다.

△국의로 가면 모두 애국자가 되려라!

△북한에서 그냥 살지 왜 돌아왔어?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었나? 짜여진 각본, 완벽한 연출 그리고 순진한 배우와 관객들. 관객들의 눈을 우롱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선전책.

△지켜워, 이젠 식상해서 별로 놀랄 일도 없음.

다들 그럴걸 식상 하다고, 쇼는 좀 그만~

△지킬것은 지키자.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러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필요가 있을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을 아끼시다.

△이래서 통일은 언제 오려나?

# 기업연수를 통해 본 직장 여성의 위치

## 여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의 선입견·편견 바꾸었으면

방향이 시작될 즈음, 우연히 학교계시관에서 '여대생기업연수'라는 타이틀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노동부가 주최하며 본교 여학생들이 참여, 3·4학년 본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나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바로 신청하게 됐다. 면접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일주일 뒤 내가 근무하게 될 LG기업으로 향했다.

7월 2일 LG트윈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우리는 각각의 부서로 배정을 받았고 내가 근무하게 된 곳은 LG전자 이동단말사업본부 CDMA단말사업부 서울사업장 내에 있는 '구매그룹'이었다.

기업연수를 하게되면 대부분 워드 작업이나 복사 등 비전문적인 일을 하게된다. 그러나 나는 일본어로 거래처에 서류 보내기, 일본사람들과의 회의 참석, 사원들을 위한 일본역사정리 등 전공하고 있는 일본어 관련 일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동단말 사업본부' 'CDMA 단말사업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사업장 4층에 있는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장에게 직접 연구소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처음 LG 트윈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대체적으로 기업연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3주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LG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업연수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여대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 내의 여성인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취업 후 회사를 금방 옮겨 다니고, 특히 3년 정도 일을 배우고 회사에서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즈음, 결혼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기업연수생으로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현장에서 우리에게 귀찮은 모습을 보여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

며 3주간의 연수를 마칠 때는 많은 생각이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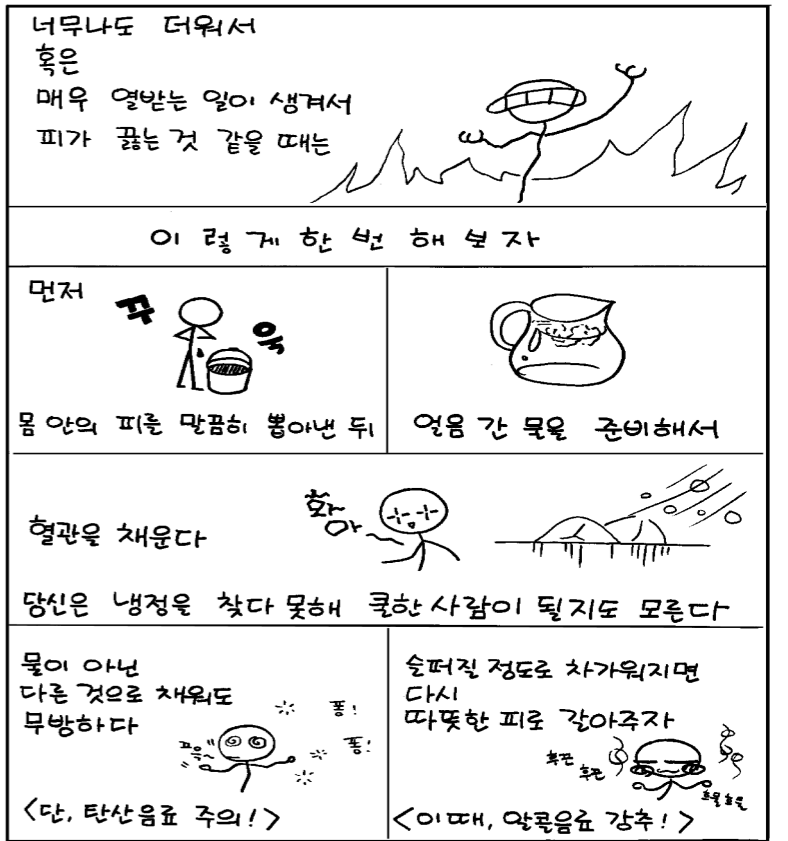
특히 이번 기업연수의 취지인 기업 내 여성 인력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학생들과 똑같은 것을 배우며 살아온 것과는 달리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그들과 거리를 느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과 좌절감이 적지는 않다. 즉 능력이 아닌 성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여성 선배들이 그러한 이미지로 비추어졌기에 생긴 결과로 보아질 수도 있다.

이제는 여성들 스스로가 반성하여 발전적인 모습으로 남성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남성들의 사고방식,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 등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수과정에 더 많은 우수한 여대생들이 참여하여, 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옥 (문과대 일문4)

# 독자 만화

## 더위를 잡아라!



정유리 (불교대 2)

##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을 위한 자세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를 뒤로한 채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세계 경제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취업과 진학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함께 하는 밝은 생활을 위해 내 생각을 적어 본다.

요즘 학교는 조용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캠프 도서관 이종창분 공사를 실시중이다. 또한 전 자료실(멀티미디어실 제외)의 이용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 개방하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와 도서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군데 군데 보여 안타깝다. 열람실에서 계속해서

서 울리는 핸드폰 소음과 도서관의 무단반출 및 자료절취로 인한 파손 등 아직도 대학생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열람석 자리를 맡아주는 행위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충분하지 못한 열람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학생을 제외한 취업준비나 논문작성, 각종 고시 준비로 인해 졸업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졸업생수가 3,000명 이상(특별열람석 발급 통계현황의거)임을 감안할 때 2002년 8월 신관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일우 (서울캠프 학술정보서비스팀 계장)

## 제주도 전경과 함께한 가슴 속 추억여행

대학생이 된 후 처음 맞이한 방학.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제주도 하이킹을 떠올려본다. 한창 무덥던 7월 중순, 부산의 빛깔과 뽕고동소리를 들으며 새벽녘 눈을 비추던 저 먼 녹빛의 제주도를 보며 친구와 난 제주에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첫 목격지인 괘지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제주 유일의 노천탕에서 어릴적처럼 물장난을 치고 밤을 수놓는 쪽죽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이튿날 새벽녘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도착한 서귀포에서 산방산을 앞에 두고 느꼈던 장엄함과 영화배우 명계남씨와 나누었던 약속은 지금도 아련히 남아있다.

중문에서 하루를 보내고 70Km를 달려 땅거미가 지기 전 천상에서나 있을 법한 성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착한 우도. 붉은 노을과 산호로 된 하얀 백사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꾸러미를 하나씩 풀어가며 밤을 지새웠다. 마지막날 뜨거운 햇살

을 등져가며 제주 문인의 자생지를 거쳐 제주의 풍경을 보며 우리는 제주여행의 미날에 도착했다. 검게 탄 서로의 모습에 웃었던 우리. 떠나는 배에 오르며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기억들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추억이란 단어로 가슴 한 구석에 머물러 있다.

정문석 (불문대1)

## 역경을 딛고 후지산 정상에 꽃은 태극기



후지산 정상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모습.

포항제철 산악회원인 나는 동료 회원들의 해외 등정을 보면서 그 산들을 동경했다.

그러던 중 일본 후지산이 1년 중 8월 한 달만 일반인에게 오픈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등반을 결심했다.

8월 11일 설상각(雪上閣)에 도착해 운동화를 벗고 등산화로 바꾼 신는 등 정상을 향한 준비를 한 후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니 지정 무렵이 되었다. 두어 시간 정도 오르니 차츰 지친 사람들이 생겨났고 잠시 후 많은 무리의 산악인들이 쳐져 있었다. 산정에 오를 무렵 일출이 맞아 떨어지도록 계획대로 나의 무박산행은 작은 손등등 하나에 의지해 마지막 공격조가 되어 거의 휘다시피 하였다.

그 뒤 세찬 소나기가 거의 한 시간동안 몰아쳤다. 고산증세에 휴대용 산소통을 입에 물고있는 사람들도 자주 보였다.

새벽 5시경, 깊이 잠들었던 온 세상에 어둠이 차츰 감허져자 산 그림자가 공제선을 만들며 천천히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밤비를 맞은 산은 물을 먹어서인지 한층 더 짙은 색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나는 7시 30분 경 후지산 정상에 그렇게 만났다.

수상의 신사참배로 시끄러운 당사자의 나라 일본에 와서 후지산에 태극기를 꽃으며 일본인이 놀려준 셔터에 사진을 찍은 나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안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조종래 (인문대 국문3)

## 노동의 참뜻 새긴 경험

방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나는 아는 형의 소개로 감해에 있는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보물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기계에서 나오는 열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큰 소리로 불러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고생끝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기계에서 나오는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는 단순 작업이었다. 반복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생끝에 참을 수 있는 나의 일당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그 시간들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힘들어 번 돈의 소중함과 고생하는 부모님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근로자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또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유준광 (인문대1)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우루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동약광장

##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1300)
화	제육볶음(1500) 너비아니구이백반(1500)
수	육개장(1500)
목	해물볶음밥(1500) 오징어까스(1500)
금	부대찌개(1500)
토	치킨까스(1500) 짜장밥(1300)
일	살랑탕(1500)
월	오징어볶음(1500) 오무라이스(1500)
화	돈육찌개(1300)
수	비빔밥(1500) 김치볶음밥(1500)

(단위:원)

##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돈육볶고추찌개(1300) 참치김치전골(3000)
화	꼬치어묵백반(1500) 도라지양념구이(3000)
수	떡볶고기백반(1500) 조기매운탕(3000)
목	계절간풍기(1300) 돈갈비찜백반(3200)
금	갈비탕(1500) 해물볶음밥(3000)
토	스키게티(1500) 장조림백반(3000)
일	비엔나볶음백반(1500) 설렁탕(3000)
월	탕수육(1500) 오징어채볶음(3000)
화	닭개장(1500) 소고기전골(3000)
수	잇소스볶음밥(1500) 콩치구이(3000)

(단위:원)

## 목격글

### 축하합니다

△9.2 이번 정수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과 일동

△ '8월이 생일인' 선주, 재경, 진규, 상민 아 생일 축하해.

-팍사팀 4기 일동

△범삽오빠, 생일 축하 -MST 여성동지들

△진선생님 졸업 축하. -광화학연구실 일동

△9.2 영도와 은영의 100일 축하, 추가~

△수교과 97 대현이와 영의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97기 동기들이

△01학번 군승후보생 합격 축하합니다.

△불교대 김영철 안전진, 600일 축하.

### 수고하셨습니다

△방학동안 차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KART, 친오빠

△범청학련 14기 통일선봉대 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

△농활, 8월 투쟁, 알바, 공부 열심히 하신 사범대 학우들 수고 했어요.

-시장

△학복위 식구들... 덕분에 특강 땀에 수고 하셨습니다. 개강엔 더 잘합니다.

-미달

△농활과 통측 사업 치러낸 생자대 학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생자장

### 열심히 합니다

△정은아! 휴학해도 열심히 공부해~ -란이

△교육학과 '물구나무' 2학기에도 보다

현찬 모습으로 열심히 합니다.

-고문

△축생축사, 2학기 우승을 위해 화이팅!

### 그리고...

△현우오빠 디더어 사회에 나가는군요.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S.J

△13대 졸준위 식구들! 덕분에 고생한다.

앨범 잘 만들어라.

-12대 짱

△아간강과 영문학과 학우 여러분! 우리

과를 꼬옥 지켜냅시다!

-부회장

## 은방글

### 축하합니다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24일, 수현아! 스무번째 생일 축하해.

-지형

△민영형~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발전된 우리 조직을 위해 어영차!!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2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잘 만들었죠? ^^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간사님 일동

△주은아! 일 하느라 수고했다.

-너의 연인

△금숙아, 방학중에 불취 연습한다고 수고했다. 2학기때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

△규미야!! 알바 끝낸 거 수고했다.

-예전 3619

## 열심히합니다

△미리안아, 윤임아, 은정아, 정은이 언니, 개강이다. 열심히 살자. 4.0알지? ^^

△도서관 식구들, 태수형님이하 모든 오라버니들,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언제나 파이팅! 알죠?

-실장, 김양희

△미리안니! 마지막 학기다. 열심히해!!

-동생이

△기필코 2학기때 3.0 넘겨야쥐 -ham98

△승현아! 사무라이에서 돈 많이 벌러라. 승현아, 조금만 더 견디자. 넌 잘 해낼 수 있을꺼야. 힘들 때 언니한테 전화도 하고,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파이팅!!

-이중사촌 언니

### 그리고...

△상임아! 피자~ 애크 시켜라. 끝까지 얻어먹게 할게다.

△은실아, 방학 잘 보냈니? 2학기 때 얼굴 좀 자주 보자.

△정형희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비나이다.

##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두부된장국(1300) 김치볶음밥(1600)
화	쇠고기볶음밥(1700) 스페나서족찜(2000)
수	순두부찌개(1300) 양송이볶음밥(1600)
목	불고기덮밥(1700) 누치볶음밥(1800)
금	된장찌개(1300) 돈까스(1600)
토	김치볶음밥(1600) 팔보채덮밥(1800)
일	북어채국(1300) 오징어비빔밥(1600)
월	닭갈비볶음밥(1700) 불국덮밥(2000)
화	이육국(1300) 참치야채비빔밥(1500)
수	해미볶음밥(1600) 짜장덮밥(1700)

(단위:원)

## 경주캠 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속주나물무침·건새우어묵된장국(2500)
화	돈까스(3000)
수	닭도리탕·오징어고추장찌개(2500)
목	돈육나물잡채·버섯매운탕(2500)
금	갈비탕(3500)
토	마늘맛콩치구이·돈부우거지탕(2500)
일	소바장식(3000)
월	양송이쇠고기볶음·추어탕(2500)
화	비빔밥(2500)

(단위:원)

### 달하나 천강에

## 함께하는 문화공간



민 병록  
예술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최근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립극장 주변을 매일 찾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국립극장이 다른 각도로 눈에 들어왔다. 차가운 시멘트 문화의 산물인 국립극장이 거대한 흉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체취를 느끼지도 못한 채 숲 속에 들어앉아 외롭게 안주해 있는 것 같았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문화공간이라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중들의 문화열망과 괴리되어 있다. 이러한 폐단은 군사독재 시대의 군사문화가 남긴 잔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이 쉽게 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문화단지는 맨해튼 42번가를 중심으로 공연장과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등이 있어 누구나 쉽게 예술과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 일본, 영국 등도 모든 문화예술 공간이 대중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교의 여유를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감은 있지만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장충동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세미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간구조와 필요한 계획안이 산만하고 현실에 쫓기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게다가 장충동의 터줏대감인 동국인이 발제자나 토론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장충동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대입구역에서부터 국립극장까지 이어지는 문화공간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이고 블록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리프트구장과 수영장, 테니스코트가 문제이다. 이들은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전근대적인 공간이다. 때문에 이들을 이전시켜서라도 문화단지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장충공원의 야의 전시관이나 공연장의 활용과 함께 본교 내 공간의 융화가 동반될 때 바람직한 장충동문화단지가 형성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디지털시대의 멀티플렉스 문화공간에서 매가플렉스 문화공간으로, 더 나아가 기가플렉스 문화공간으로 모든 예술이 거대한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길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이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간구조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군사문화의 상징인 국립극장과 같은 잔해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 보호를 못하면 침해라도 말아라!

## 저작권 협회, '저작권자 권리보호' 본업 수행해야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 제1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과연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을까.

최근 이재수가 패러디 앨범 '이런'에서 서태지

의 원곡 '컴백홈'을 저작자인 서태지의 동의없이 '컴백홈'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관해서 '단순한 패러디냐, 저작권의 침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컴백홈'의 경우처럼 원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패러디한 곡을 부르는 제2, 제3의 이재수가 나온다면 이 땅의 패러디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원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술한 현행 저작권법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저작권협회의 사전승인 절차는 당연히 무시할 것이고, 사후승인이라는 편법만을 쓰게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1년6개월이 지나면 저작권 협회에 가입되어진 앨범의 모든 곡은 저작권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1년6개월이 지난 곡에 대해서는

일정의 저작료를 지불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서태지와 이재수.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서 불합리한 저작권법의 적용과 저작권 협회가 무분별하게 승인

을 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저작권 문제에서 이재수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재수의 패러디 앨범이 사전승인 없이 발매된 것에 대해 서태지가 저작권협회에 '사후승인 불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저작권협회가 일방적으로 사후승인을 내줬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제2장 제3절 제11조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협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커녕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한 꼴이 된다.

이번 서태지와 이재수 사건 전에도 저작권협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의한 폐해는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성모가 리메이크곡을 모아 발표한 클래식 앨범의 작곡, 작사 관련 사용료 지불문제를 들 수 있다. '저작물 징수규정'에 따라 작곡, 작사가들에게 소매액의 7%를 인세로 지불하는 인세제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협회가 임의로 편당 2백만원의 정액제를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방은 창조 어머니'라는 말을 아무 비관없이 받아들이며 저작권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창작'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속에 작가의 열정과 혼이 담긴다는 것을 간파해선 안된다. '모방'이나 '표절'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저작권 위반행위들은 더 이상 더 나은 창작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 받기에는 다른 이의 가치관과 열정 그리고 혼을 흠지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협회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일삼던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훈 할머니, 도쿄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강덕경 할머니, 숨결, 나눔의 집.' 이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위안부라 불리며 평생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산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 역사이다.

지난 13일 연강홀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난날 한을 이루만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공연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공연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헌정음악회를 제작한 인디밴드 '실험독립만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주축으로 기획되었다.

'실험독립만세' 대표 임상훈씨가 위안부 할머니의 한과 삶의 응어리를 합합과 테크노, 락으로 표현한 이 공연은 다큐멘터리 영상, 창작무용, 노래

이선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채워졌다. 특히 '빛꽃나무 밑에서 발가벗긴 채 울고있는 위안부'를 그린 강덕경 할머니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빼앗긴 순정'은 꽃다운 나이 열여섯에 위안부로 끌려간 문필기(76) 할머니가 직접 불러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밖에 생리 중에도 군인을 상대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노래이선으로 담은 '증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보여준 '문어' 등 전체적으로 할머니들의 힘겨운 삶이 그대로 전해지는 공연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금주(82) 할머니와 유순만(80) 할머니는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박수를 치는 등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이었다. 황 할머니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아픔을 함께 하고 분노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다. 또한 정대협 김윤옥 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바로 나의, 우리의 할머니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잠시 잠깐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거리로 여겨선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10년째 외로이 벌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요구' 운동도 남의 일처럼 무심히 넘겨선 안 될 것이다. 몇몇 시민단체와 할머니들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빼앗은 과거를 씻어낼 수는 없다. 공연이 끝날 무렵 관객석에서 터져 나온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란 외침처럼 이제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분들 곁을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회복운동을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잠은소식

#### '탈' 공연

서울캠 민속극 연구회 '탈'이 개강을 맞아 탈춤 한마당을 연다.

새내기들에게 탈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공연은 고성탈춤과 봉산탈춤을 재구성해 선보인다.

오래만에 신명나는 우리 춤의 맛과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27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1시. 불상 앞에서.

문의 019-9737-8759 (최창민)

#### 대중음악개혁을 위한 포럼

지속적인 대중음악개혁운동을 벌여 온 문화연대가 오는 29일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대중음악시스템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편중된 음악시장, 연예기획사 난립, 저작권 등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음악계에 민연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문의 773-7707

#### 노래 토론회, '따로 또 같이'

월례문화마당 세상만사는 다음달 20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노래 토론회, 따로 또 같이'를 공연한다.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 'haj' 내 999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지난 17일부터 시작, 총 15개 팀의 민중가수들이 참석해 7주 동안 릴레이로 진행된다.

또한 전문가수술 이외에도 노동자 노래패를 비롯해 여러 노래 동아리들이 함께 참가해 보다 다양한 음악 색깔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따로 또 같이'란 민중가수들이 평소에는 비록 '따로' 공연하지만 관객들에게 민중가요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같이'는 뜻으로, 민중가요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 기획의도를 나타낸다.

문의 2637-6562

#### 문화콘텐츠 진흥원 개원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 문화콘텐츠진흥원을 개원하고, 그동안 지원해 오던 문화산업센터를 문화콘텐츠진흥원에 확대 개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매체비평

#### 애니메이션 편

#### 별주부 해로

“스스로 칭찬하지 마! 그건 관객의 몫이니까”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국내 애니메이션 '별주부 해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의미있는 성과’, 조금 편차는 있지만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별주부 해로’(총감독 김덕호, 제작 한신코퍼레이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대강 이런 논조를 띠고 있다. 국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비교적 후하게 평을 하는 언론의 관습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나쁜 평가는 아니다. ‘별주부 해로’는 ‘슈렉’, ‘파이널 판타지’ 같은 할리우드의 흥행 대작이나 일본의 ‘이웃집의 토토로’, ‘포켓몬스터’ 같은 버거운 작품들과 경쟁하면서 주목할만한 흥행 성적을 거두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흥행성적과는 별개로 해외 배급에서는 좋은 수출실적을 거두어(제작사 발표에 따르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그러면 과연 ‘별주부 해로’는 언론의 수사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작품일까? 먼저 유념할 점은 ‘별주부 해로’가 ‘이웃집의 토토로’나 ‘슈렉’처럼 성인관객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별주부 해로’는 철저하게 초등학교생 이하의 어린이를 타겟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의 세계관이 나 같듯 구조가 단순하거나 사건이 ‘유치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별주부 해로’는 기술적으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에 우리 기술로 2D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했고, 한차례 개봉을 연기하면서 미국에서 후반작업을 통해 3D 컴퓨터 그래픽까지 가미한 영상은 제작비를 감안 할 때 꽤 높은 완성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비교적 잘 된 영상’이 어떻게 쓰였느냐는 것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해서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아무 장면이나 재미있으면 마구잡이로 써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별주부 해로’의 큰 약점은 작품을 관통하는 이야기 열개가 성의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기동 줄거리인 해로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서는 이야기와 기존 전래동화는 전혀 연관성없이 따로 논다. 여기에 극적 재미를 위해 무리하게 이어붙인 토끼의 에피소드나 뜬금없이 등장하는 뮤지컬 장면은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제작사가 자랑했던 컴퓨터 그래픽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순간적인 볼거리만을 연출하는데 그쳤다.

이 작품이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모 영상이나 아니면 최소한 왜 이런 장면을 넣었는지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은 있어야 한다. 아무 의미없이 영화 ‘매트릭스’의 총알 피하는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상어 개거리들이 난데없이 춤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했다면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작품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관객과 평자들의 몫이지, 제작사 스스로 ‘자 가발전’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별주부 해로’는 제작사의 홍보 능력과 작품의 완성도가 결코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김재범  
애니메이션 칼럼니스트

#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계와 함께하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다. TV, 비디오, 핸드폰, 계산기... 감히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계문명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미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한잔의 물처럼 몸 속 깊숙이 스며들고 말았다. 과연 기계문명이라는 신이 내린 축복이란 말인가?

#### 너, 인간을 약화시키는거야?

인간이 신 대신 등장하고 신은 퇴위한 상태, 이것이 현재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계와 기술, 대중의 시대에서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 기계는 진보적인 생활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계를 통해 얻은 편리한 생활은 인간의 개성을 경제적 수단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 자신을 독자적 근원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비롯한 타인을 믿지 않는 수단화와 무력화가 관치는 현실로 말이다. 물론 과학 기술의 발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체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깝잖아 환영해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계가 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기이한 흐름이 눈길을 끌고 있다. 1년 365일 항상 그 자리에 변함 없이 서 있는 자판기 문화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 컴맹! 넷맹! 자맹?

어느 누군가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이라 우스갯소리를 해댄다. 그러나 오늘날 자판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자맹’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다. 최근 자판기가 실생활에 빠른 속

도로 침투하면서 미래 지향적 유통기기로 새롭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판기는 일반 유통 분야 및 실생활에 있어 사람의 손이 일일이 따라야 하는 유인 판매 수단을 기계를 통해 무인화 시킴으로써 단순 노동력의 절감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즉 예전에는 일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판기가 훌륭한 무인 점포가 된 셈이다. 이 무인 점포는 일반 직원들처럼 임금을 줄 필요도 없고, 24시간 노동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다. 뿐만 아니라 동전 한 푼 빼돌리지 않는 정직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속 드는 녀석이 아닐 수 없다.

#### 자판기 문화의 주인은 바로 나

가까운 일본은 그야말로 자판기 천국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6백 만대 이상의 자판기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유인 점포가 6, 7 시면 어김없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판기가 유인 점포의 제한적 영업 특성을 훌륭히 대체하고, 개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판기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자판기 시대를 앞장간다고 구경만 하다가는 막다른 골목길에 몰릴 수도 있는 일이다. 인간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 이상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일은 미래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 자판기를 인간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닐지는 인간의 손 안에 달려 있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기발한 무인시스템, 모여라

#### 무인 우체국

얼마 전 충무로 역 귀퉁이에 ‘무인 우체국’이 설치되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직 하철공사가 지난달 충무로역을 비롯해 시청, 을지로 입구, 삼성, 잠실, 역삼, 사당역에 설치한 이 무인 우체국은 일반우편부터 등기, 국제우편물과 6kg 이하의 소포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용방법 또한 간단해 화면안내에 따라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용 가능한 시간이 일반 우체국보다 길어 굳이 멀리 떨어진 우체국까지 발걸음을 할 필요가 없다. 무인 우체국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미수(34)씨는 “편지봉투에 우표 대신 인지를 붙여,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느낌이 싸다를 것”이라며 “우편물 수거시간에 맞추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

#### 라면 자판기

딱 3분이면 된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출출해지면 얼마가 끓인 듯한 라면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말이다. 현재 여러 대학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 자판기’는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라면의 맛에 대한 의견은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계에 청분을 만들어 조리과정을 공개했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한 한꺼번에 16인분의 조리가 가능한 것과 일회용품이 아닌, 일반그릇을 반복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장이 잦다는 점은 ‘욱의 티’라 할 수 있다.

#### 무인 손톱 관리기

이제 웬만한 변화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 자동 손톱 관리기’. 기계에 동전을 투입한 후 손가락을 넣고 원하는 디자인만 고르면 손톱에 예쁜 그림이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 손톱 관리기는 손톱아트작업 이외에도 인조손톱 붙이기, 손톱미용 등 손톱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것은 보다 특이하고, 튀는 것을 선호하는 신감각 소비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겨냥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그리고

장미꽃도 자판기로 뽑는 시대다. 지난 4월 출시된 ‘켄 꽃’은 용기 속에 질소를 넣고 꽃을 담아 생화의 심상한 그대로를 자판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양한 용기만 있다면 자판기 꽃은 안갯꽃부터 해바라기까지 특정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만 질소를 넣어 인위적으로 유지시킨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무인 호텔’도 등장했다. 안내판을 통해 민방을 확인한 후 입실할 수 있는 이 호텔에는 룸서비스를 대신하는 실체자판기가 있고 음식과 비품사용, 숙박료 등 모든 계산이 자동정산기로 처리된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영화 'A.I.' 속 무인시대

## “감히 인간이 되기 위해 나를 웃고 울려?”

때로는 위협감마저 드는 데이빗이란 꼬마가 있다. 하지만 그 녀석에게 웬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드는 건 인간보다 더 인간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스토리에 접어 저 녀석은 로봇이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면 “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외쳐대기까지 한다. 이런 녀석을 보며 뒤통수가 따끔거리는 건 왜 일까? 인공지능이든 감정을 갖고 있던 기계가 인간을 표방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

데이빗은 자신과 같은 모습의 로봇들을 보면서 강한 부정과 분노에 차 바다 속으로 자신을 내 던진다. 그런 데이빗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성이라든가 고유성을 침해당한 것 같아 영 기분이 찼을 때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문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 문명을 만들어낸 상환을 떠올려 볼 때 이것은 예측된 결과일 뿐이다. 처음 데이빗을 봤을 때, 불치병으로 병들었던 모니카의 아들 마틴이 살아 돌아온 줄만

알았다. 물론 이렇게 착각하게끔 짜놓은 플롯의 정교함도 작용했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해맑은 아이 같았기 때문이다. 점점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데이빗에게 적응되어 있을 때쯤 마틴이 나타난다. 그가 온 뒤로 데이빗은 다시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점점 인간의 모습이 배어버린 그에게 얼마도 마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피도 심장을도 없는 존재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 곧 기계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 메아리

#### 허무 개그

▲“때는 비야흐로 조선시대”  
“죄인은 포박을 받으라”  
“싫어”  
“어, 그래”  
바가지머리에 촌스러운 의상, 그야말로 허무하게 생긴 두명의 개그맨이 던지는 네 마디다. 허무개그는 ‘허무하게도’ 4초 만에 모든 개그가 끝난다. 짧은 시간 동안 웃기만 ‘개그’가 되고 안 웃기더라도 ‘허무’가 된다. 그래서 ‘웃겨서 웃었다’라기

보다 ‘어이가 없어서’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주한미군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 사법부 정식재판에 회부된 엘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 수령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22일 집행관을 미군 용산기지로 보내 공소장을 전달하려했

나 미군측의 제지로 부대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미군측은 ‘소과규정에 따라 근무수행중 일어난 사건은 미군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명확한 소과의 재판관할권 규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 행사거부에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뚜렷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교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자가 단지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 회부 후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커닝 영문공소장 작성, 공소장 송달 문제로 4개월이나 끌고, 공소장 하나 전달하지 못하는 사실이 말이 되는가.  
▲만약 주한 미군을 소재로 허무개그를 만든다면? 일단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미군이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50년의 역

사를 자랑하고, 사실상 미군부대가 치외법권지대라는 점에서 범죄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정말로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학생, 노동자 등 수 없이 외쳐와서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허무하다. 잠잠했던 매항리 하늘에 지금도 미군의 폭격기가 날아 다니는 현실이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한다.  
김현중 대학부장  
dizzy20@dongguk.edu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어깨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온기는 통일로 달려가는 열차의 원동력이 되어.



▲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관현악을 타고 흐르는 통일 노래들. 조화로운 이들의 음악은 모두가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하다.

▶ '차표 한 장으로 경의선 타고 북녘에 닿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의도에 울려 퍼지던 가수 송대관 씨의 외침처럼 통일의 길도 시원하게 뚫리기를...



◀조심스레 한반도를 그리는 여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손에 하나된 조국을 그리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속까지 통일의 기운을 듬뿍 담아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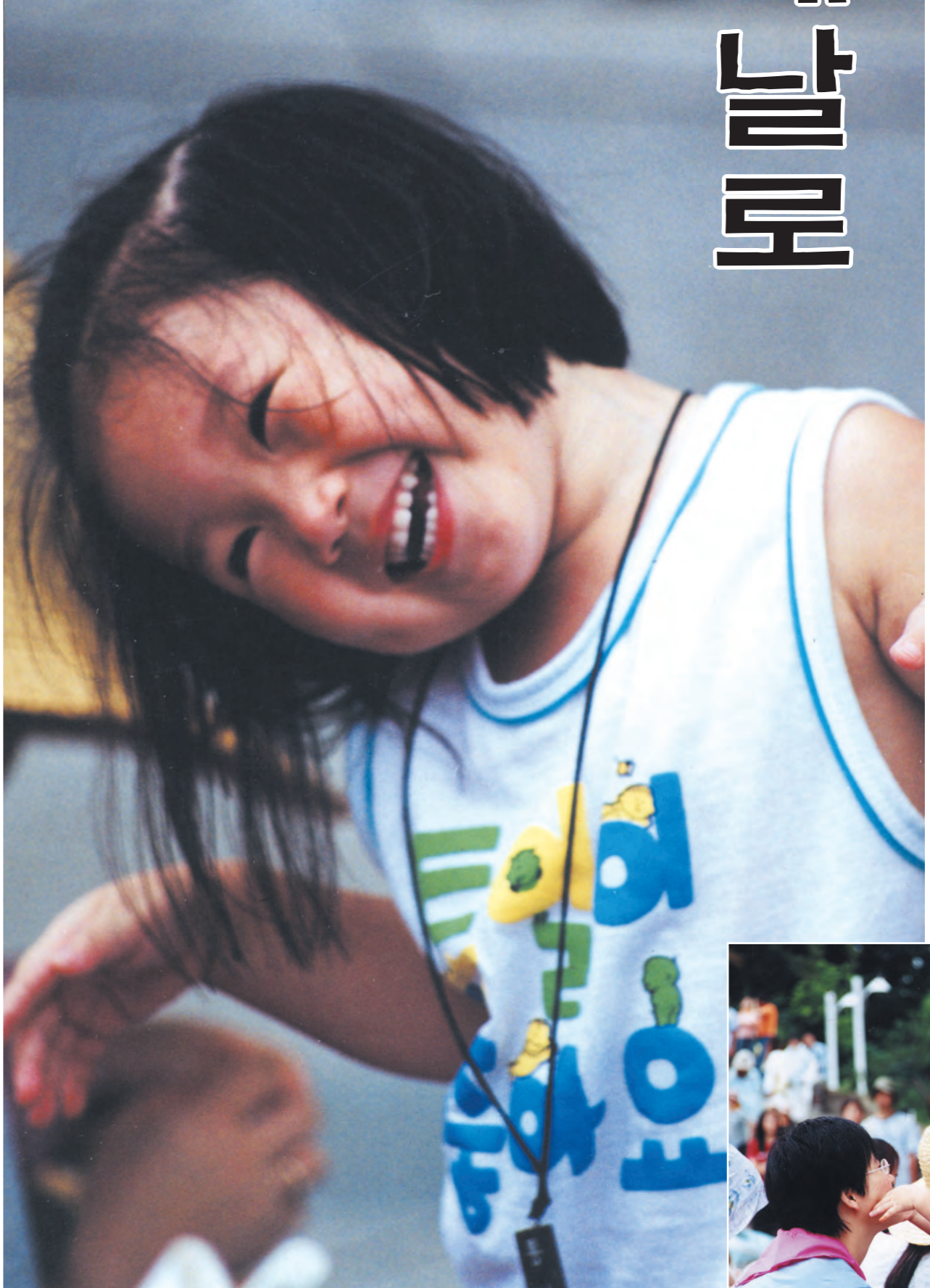


▶ "난 평양으로 갈테야" 남북을 가로막는 철조망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도 어린 소녀의 눈앞에서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겹게 치켜올린 주먹. 눈감기 전에 통일된 조국을 보고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은 하늘 높이 치솟는다.

▼"아들아! 이것이 네가 살아갈 조국의 현실이란다" 세상의 밝은 곳만을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어린 아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예쁜 딸 소원이야! 소원이가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덧 4년이 다 돼가는구나. 분단이 무언지 통일이 무언지 알 수는 없을 테지만 엄마는 우리 소원이의 이름처럼 네가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해맑게 웃음지으렴.



우리 잡은 손 다시는 놓치지 말고  
꼭 잡고서 꼭 잡고서 함께 가요 평화의 길로

지난 헤어졌던 날도 서러운 날도 눈물의 날도  
꼭 잡고서 꼭 잡고서 풀어내어 통일의 길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등돌린 날만큼  
그저 불가능해 보인 것들이 자! 봐  
이젠 꿈처럼 다가오잖아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하늘이여 이땅의 평화통일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안지환의 '동행' 중에서

# 우리 가슴에 통일의 새 날 찾겨